

# 《몽량록(夢梁錄)》 역주(譯註) \*

- 권칠(卷七)

金敏鎬\*\*

## <목 차>

1. 항주(杭州)
2. 대하(大河)의 다리들
3. 소하(小河)의 다리들
4. 서하(西河)의 다리들
5. 소서하(小西河)의 다리들
6. 치소(治所)가 있는 성남상(城南廂)의 다리들
7. 치소(治所)가 있는 성북상(城北廂)의 다리들
8. 아홉 지역의 상(廂)으로 구획 된 항주성의 구역들[坊巷]

## \*《몽량록》 권7의 내용 소개

《몽량록》 권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1. <항주(杭州)> 조에서는 항주의 별칭(別稱)과 역사에 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항주의 성문(城門)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 <대하(大河)의 다리들> 조에서는 항주성을 흐르는 대하에 걸쳐 있는 다리들의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3. <소하(小河)의 다리들> 조에서는 역시 항주성을 흐르는 소하에 걸쳐 있는

\* 《몽량록(夢梁錄)》 권일(卷一), 권이(卷二), 권삼(卷三) 역주(譯註)는 각각 《중국어문논역총간》 28집, 29집, 30집에, 권사(卷四)는 《중국어문학지》 41집에, 권오(卷五) 상(上)과 하(下), 권육(卷六)은 각각 《중국학논총》 44집, 46집, 47집에 게재되어 있음.

\*\* 한림대학교(翰林大學校) 중국학과(中國學科) 교수(教授).

다리들의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4. <서하(西河)의 다리들> 조에서도 항주성을 흐르는 서하에 걸쳐 있는 다리들의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5. <소서하(小西河)의 다리들> 조에서도 항주성을 흐르는 소서하에 걸쳐 있는 다리들의 위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6. <치소(治所)가 있는 성남상(城南廂)의 다리들> 조에서는 성남상이 관할하는 다리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7. <치소(治所)가 있는 성북상(城北廂)의 다리들> 조에서는 성북상이 관할하는 다리들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8. <아홉 지역의 상(廂)으로 구획 된 항주성의 구역들(坊巷)> 조에서는 궁성상(宮城廂), 좌일남상(左一南廂), 좌일북상(左一北廂), 좌이상(左二廂), 좌삼상(左三廂), 우일상(右一廂), 우이상(右二廂), 우삼상(右三廂), 우사상(右四廂) 등 항주성에 속해 있는 아홉 구역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 항주(杭州)

항주성(杭州城)은 무림(武林)이라 불렀는데, 또 전당(錢塘)이라고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산(胥山)이라고도 불렀다. 수대(隋代)에 특별히 이 군(郡)에 성(城)을 만들었을 때는, 성 주위가 36리(里) 90보(步: 약 20,880m)에 불과하였다. 후에 무숙전왕(武肅錢王)이 민정(民丁)과 병졸들을 내어 나성(羅城)을 증축하였는데, 주위가 70리(약 40,320m) 정도 되었다. 남쪽의 성문을 일러 용산(龍山)이라 하였고, 동쪽의 성문을 일러 남토(南土)·북토(北土)·보덕(保德)이라 불렀다. 북쪽의 성문은 북관(北關)이라 불렀는데 지금의 여항문(餘杭門) 밖에 있었다. 민가(民家)의 문수(門首)에 있는 청석숙(靑石塾)이 바로 그것이다. 서성문(西城門)은 수서관(水西關)이라 불렀는데 뇌봉탑(雷峯塔) 앞에 있었다. 성 안에는 문이 세 개 있었는데 조천문(朝天門)·계화문(啓化門)·염교문(鹽橋門)이라 불렀다.

송(宋) 태평흥국(太平興國) 연간 전왕(錢王)이 영토를 헌납하였는데, [네 글자가 빠져 있고, 그 뒤에 “안유(安有)”가 있음], 영해군(寧海軍)이라 불렀다. 고종(高宗)은 소흥(紹興) 연간에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곳에 주필(駐蹕)을 하였고, “행재소(行在所)”라 칭하였다. 그 땅은 강을 끼고, 호수를 품고 있고, 하천이 모이고(다섯 글자가 빠져 있고, 그 뒤에 “연(衍)”이 있음), 사람과 물자가 풍부해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나 조그마한 군(郡)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송으로 돌아 온 이후 (다섯 글자 빠짐) 이름을 바꾸었다. 한문(旱門)이 13개 뿐이었고, 수문이 5개 있었다. 성 남쪽에 있는 문으로 가회문(嘉會門)이 있었다. 성루(城樓)의 화려함이 다른 문들과 비교해 으뜸이었는데 아마도 이 문이 어도(御道)로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남교(南郊)의 의전(儀典)이 있을 때는 오로(五輅)가 여기서부터 교대(郊臺)로 행차를 하였다. 성의 동문(東門)은 7개가 있었는데, 북수문(北水門)·남수문(南水門)이라 하였다. 아마도 궁궐의 물이 이곳을 통하여 흘러 나가 철사하(鍊沙河) 및 횡하교(橫河橋) 밑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 문에는 철창책(鍊窗柵)이 있어 닫아걸었는데 매번 열지는 않았다. 이 외에 편문(便門), 후조문(候潮門)이 있었고, 보안수문(保安水門)이란 것은 그 수로(水路)가 과포교(跨浦橋)와 통하였는데, 전당강(錢塘江)과 서로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보안문(保安門)이란 것은 민간에서 소언문(小堰門)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개문(新開門)이 있었다. 성의 동문은 3개가 있었다. 숭신문(崇新門)은 민간에서 천교문(薦橋門)이라 불렀고, 동청문(東靑門)은 민간에서 “채시(菜市)”라고 하였다. 그리고 간산문(艮山門)이 있었다. 성 북문은 3개가 있었다. 천종수문(天宗水門), 여항수문(餘杭水門), 그리고 여항문(餘杭門)이 있었는데 이전에 “북관(北關)”이라 불리던 것이 그것이다. 대저 이 문들은 절서(浙西)·소(蘇)·호(湖)·상(常)·수(秀)에서 강(江)·회(淮)의 여러 도(道)로 물길과 물길이 모두 직접 통하였다. 성 서문은 4개가 있었는데 전당문(錢塘門)과 풍예문(豐豫門), 즉 용금문(湧金門)과 민간에서 “암문(閘門)”이라 부르는 청파문(淸波門), 그리고 전호문(錢湖門)이 있었다. 이 문들 중 편문(便門)·동청문(東靑門)·간산문(艮山門)

은 모두 옹성(甕城)으로 되어 있었다. 수문(水門)은 모두 평옥(平屋)이었고, 그 외 한문(旱門)들은 모두 누각(樓閣)을 갖추고 있었다. 성벽들은 각각 높이가 3장여(약 10m), 너비가 1장(약 3.2m) 정도 되었는데 금약(禁約)이 엄격하여 사람들이 감히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죄를 물었다. 성 안에 있던 이전의 문 세 개는 모두 폐허가 되어버렸고, 오직 조천문(朝天門)만이 양쪽의 성벽(城壁)을 남겨두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항주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문이라고 불렀다.

## 1. 杭州

杭城號武林<sup>1)</sup>, 又曰錢塘<sup>2)</sup>, 次稱胥山<sup>3)</sup>. 隋朝特胤立次郡城<sup>4)</sup>, 僅三十六里九十步<sup>5)</sup>, 後武肅錢王<sup>6)</sup>發民丁與十三寨軍卒增築羅城<sup>7)</sup>, 週圍七十里許, 有南城門,

- 1) 무림(武林): 무림산(武林山)에서 나온 항주의 별명으로 보통 서호(西湖) 서쪽의 두 개의 봉우리를 갖고 있는 영은산(靈隱山)을 가리키나, 협의로는 남송시대 성내 서북쪽 동태을궁(東太乙宮) 안의 조그마한 축산(築山)을 무림산으로 불렀다.
- 2) 전당(錢塘): 진대(秦代) 전당현(錢唐縣)을 설치하였고, 그 치소(治所)는 영은산 아래 두었다. 그 후 당대(唐代)에 '방조제[塘]'를 건설함에 있어 토석(土石) 1말에 '돈[錢]' 1000량을 쏟아 부었다는 것에서 '전당(錢塘)'이란 이름이 유래하였다. '당(唐)'자에 '토(土)'변이 붙은 것은 당대 이후 부터였다.
- 3) 서산(胥山): 서산은 성내 남쪽의 구릉(丘陵)인 오산(吳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국시대(戰國時代) 월(越)의 명신 오자서(伍子胥)의 이름에서 취한 것이다.
- 4) 수조특창립차군성(隋朝特胤立次郡城): 수문제(隋文帝) 개황(開皇) 11년(591년) 항주치(杭州治)를 봉황산록(鳳凰山麓)으로 옮겼고, 양소(楊素)가 축성을 하였다.
- 5) 삼십육리구십보(三十六里九十步): 약 20,880m. 참고로 북송 동경의 외성 둘레는 40여리(약 23,040m)였다. 《몽량록》이 쓰인 송대(宋代)에는 360보를 1리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당대(唐代) 이래로 건설 등의 측량에 쓰였던 영조척(營造尺)에 의거하면 1척은 약 32cm에 해당한다. 1리는 360보이고, 1보는 5척이며, 1척은 32cm이기에 1보는 160cm, 1리는 576m에 해당한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선공십오년(宣公十五年)> 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예전에는 300보를 1리로 하였다[古者三百步爲里]."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360보를 1리로 삼게 되어 청대(清代)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 <리(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穀梁傳》에 의거하면 예전에는 300보를 1리로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360보를 1리로 한다[「穀梁傳」: 「古者三百步爲里. 今以三百六十步爲里.」 이들 기록만 보면 1리를 300보와 360보로 쓰고 있기에 실제 길이에

稱爲龍山；東城門號爲南土·北土·保德；北城門名北關，今在餘杭門外，人家門首有青石塾是也；西城門曰水西關，在雷峯塔前。城中有門者三：曰朝天門，曰啓化門，曰鹽橋門。宋太平興國年間，錢王納土，□□□□安有，號爲寧海軍<sup>8)</sup>。高廟於紹興歲南渡，駐蹕於此<sup>9)</sup>，遂稱爲“行在所<sup>10)</sup>”。其地襟江抱湖，川湊□□□□衍，民物阜蕃，非殊方下郡比也。自歸宋□□□□易名。旱門僅十有三，水門者五。城南門者一曰嘉會，城樓絢綵，爲諸門冠，蓋此門爲御道，遇南郊，五輅從此幸郊臺路。城東門者七，曰北水門，曰南水門，蓋禁中水從此流出，注鍊沙河及橫河橋下，其門有鍊櫺柵鎖閉，不會輒開；曰便門；曰候潮門；曰保安水門，河通跨浦橋，與江相隔耳；曰保安門，俗呼小堰門是也；曰新開門。城東門者三：曰崇新門，俗呼薦橋門；曰東青門，俗呼“菜市”；曰艮山門。城北門者三：曰天宗水門，曰餘杭水門；曰餘杭門，舊名“北關”是也。蓋此門浙西·蘇·湖·常·秀，直至江·淮諸道，水陸俱通。城西門者四：曰錢塘門；曰豐豫門，卽湧金；曰清波，卽俗呼“閘門”也；曰錢湖門。其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1975년 대만상무인서관(臺灣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오락(吳洛)의 《중국도량형사(中國度量衡史)》 96면을 보면 주대(周代) 이후 300보를 1리로 하고, 6척을 1보로 하였기에 1리의 길이는 1,800척(6×300), 즉 576m(1,800×0.32)가 되는데, 송원대에는 5척을 1보로 하기에 당시 계산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이 이를 보정하려 360보를 1리로 삼으면서 1리의 길이는 여전히 1,800척(5×360), 즉 576m로 이전 시대와 실제 거리에 있어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1리를 360보로 하건, 300보로 하건 1리의 전체 길이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 6) 무숙전왕(武肅錢王): 오월국(吳越國)을 창업한 전류(錢鏐: 907-932년 재위)이다.
- 7) 증축나성(增築羅城): 이 일은 당(唐) 소종(昭宗) 경복(景福) 2년(893년)의 일로 태망산(泰望山)에서 구성(舊城)의 안으로 들어가 전당강까지, 서호(西湖), 곡산(霍山), 범포(范包)를 포함하는 70리(약 40km)에 이르는 나성(羅城)을 신축하였다. 동원된 백성들은 20만이었는데, 여기에는 전씨(錢氏)의 핵심 전력과 항주 13도(都) 및 징발된 병사들이 포함되었다.
- 8) 영해군(寧海軍): 이는 원래 절도사가 지냈던 군호(軍號)이다. 항주는 전씨(錢氏) 이전부터 진해군절도사(鎭海軍節度使)란 군호를 지니고 있었다. 전숙(錢俶)의 귀속(歸屬)으로 잠시 순화군(順化軍)이란 과도기 명칭을 갖다가 순화(淳化) 5년(994년)이 되어 영해군이 되었다.
- 9) 주필어차(駐蹕於此): 송(宋) 고종(高宗) 조구(趙構: 1107-1187)가 개봉(開封)에서 도망나와 양주(揚州)로 갔다가, 금군(金軍)의 추격을 피해 항주(杭州)에 처음 도착한 것은 건염(建炎) 3년(1129) 2월이고, 그 후 우여곡절을 겪은 뒤 최종적으로 항주를 행재소(行在所)로 삼은 것은 소흥(紹興) 8년(1138) 2월이다.
- 10) 행재소(行在所): 행재(行在)라고도 한다. 행재소란 ‘황제가 잠시 행차하여 머무는 장소’란 뜻으로, 남송의 수도 항주가 잠시 머무는 곳이란 의미이다. 여기에는 금나라에 빼앗긴 북송의 수도 개봉(開封)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諸門內便門·東青·艮山, 皆甕城. 水門皆平屋. 其餘旱門, 皆造樓閣. 諸城壁各高三丈餘, 橫闊丈餘, 禁約嚴切, 人不敢登, 犯者準條治罪. 城內元三門俱廢之, 獨朝天門止存兩城壁, 杭人猶以門稱之.

## 2. 대하(大河)의 다리들

화녕문(和寧門) 밖, 등평방(登平坊) 안에 있는 것을 등평교(登平橋)라 부르고, 그 다음을 육부교(六部橋), 즉 도정역교(都亭驛橋)라 하였다. 북쪽에 있는 것을 흑교(黑橋)라 하였고, 옥첩소(玉牒所) 맞은편 거리에 있는 것을 주교(州橋)라 하였다. 집행부(執政府) 운하(大渠) 남쪽에 있는 것을 안영교(安永橋)라 하고, 그 다음을 국청교(國淸橋)라 하였으며, 동쪽으로 향하였다가 북쪽으로 돌면 있는 것을 보안연수교(保安延壽橋)라 하였다. 각화무(榷貨務) 동쪽에 있는 것을 부민교(阜民橋)라 하였는데 선박이 통과할 수 없었고, 합동장(合同場) 앞에 있는 것을 과군교(過軍橋)라 하였다. 잡매장(雜賣場) 서쪽에 있는 것을 통강교(通江橋)라 하였다. 대하(大河)를 따라 곧바로 가면 도달하는 곳이 망선교(望仙橋)였고, 그 다음을 일러 종양궁교(宗陽宮橋)라 하였다. 개진도관(介眞道館) 앞의 것을 일러 삼성교(三聖橋)라 하였고, 영광부(榮王府)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우성관교(佑聖觀橋)라 하였다. 축제 등의 구경을 위해 강을 따라 설치한 관람석인 간위(看位)들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영광부교(榮王府橋)라 하였다. 상경방(常慶坊) 동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태화루교(太和樓橋)라 하였는데, 속명으로는 “시타교(柴垛橋)”라 하였다. 부악방(富樂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천교(薦橋)라 하였고,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풍악교(豐樂橋)라고 하였다. 선이방(善履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유납국교(油蠟局橋)라 하였는데, 예전에는 신교(新橋)라고 불렀었다. 흥복방(興福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염교(鹽橋)라 하였는데, 위쪽에 광복부순부혜부우후(廣福孚順孚惠孚佑侯) 장상공(蔣

相公)을 모시는 사당(祠堂)이 있었다. 다리의 동쪽으로는 계속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마른 내에 걸려 있는 이 다리(旱橋)를 일러 포교(蒲橋)라 하였다. 함순창(咸淳倉) 앞에 있는 것을 일러 함순창교(咸淳倉橋)라 하였는데, 원래 이름은 동교(東橋)였다. 어주고(御酒庫)의 동쪽 것을 일러 탐방교(塌坊橋)라 하였고, 선림사(仙林寺) 동쪽 것을 일러 선림사교(仙林寺橋), 평적창(平糶倉)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서교(西橋)라 하였다. 풍저창(豐儲倉) 뒤의 것을 일러 갈가교(葛家橋), 동쪽 것을 일러 통제교(通濟橋)라 하였는데 속명을 매가교(梅家橋)라 하였다. 어주고(御酒庫) 북쪽 것을 일러 소매가교(小梅家橋)라 하였고, 통제교(通濟橋) 북쪽 것을 일러 전가교(田家橋)라 하였으며, 그 다음 것을 일러 보제교(普濟橋)라 하였다. 백양지(白洋池)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백양지교(白洋池橋)라 하였고, 그 다음 것을 일러 방가교(方家橋)라 하였다. 대하(大河)에서 천종수문(天宗水門)으로 곧바로 통하면 삼감(三閘)에 이르렀다.

## 2. 大河<sup>11)</sup>橋道

自和寧門外登平坊內曰登平橋. 次曰六部橋, 卽都亭驛橋. 北曰黑橋, 在玉牒所對巷曰州橋. 執政府大渠南曰安永橋, 次曰國淸橋, 投東轉北曰保安延壽橋. 權貨務<sup>12)</sup>東曰阜民橋, 不通舟楫. 合同場前曰過軍橋. 雜賣場西曰通江橋. 沿大河直至

11) 대하(大河): 《몽량록》이 쓰여진 남송 말기의 항주성에는 몇 줄기의 남북을 축으로 흐르는 수로가 있었다. 이 수로들은 전당강(錢塘江)의 물을 받는 수로와 서호(西湖)와 관계된 수로로 크게 나뉘었다. 전당강과 관련된 수로는 성남(城南)에서城北(城北)을 관통하였는데, 대하(大河)와 소하(小河)로 나뉘어 나란히 흘렀다. 이 조에 나오는 대하는 궁성 북문인 화녕문(和寧門)에서 일직선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약 4km 지점에서 왼쪽으로 꺾어져 1km 이상 가다 북관(北關) 근처의 천종수문(天宗水門)까지 흐르는 것을 가리킨다.

12) 각화무(權貨務): 태부시(太府寺) 소속의 기구로 현물 교환인 절박(折博), 곡물을 재는 기구인 곡두(斛斗), 황금과 비단 등 돈 대신 쓰이는 물품 등을 담당하였다. 회녕(熙寧) 5년(1072) 이후 시역서무하계(市易西務下界)로 바뀌었다(《송사(宋史)》 <직관지(職官志)> 5).

曰望仙橋, 次曰宗陽宮橋. 介眞道館前曰三聖橋, 榮王府前曰佑聖觀橋. 沿河看位<sup>13)</sup>前曰榮王府橋. 常慶坊東北曰太和樓橋, 俗名“柴塚”. 富樂坊東曰薦橋, 北曰豐樂橋. 善履坊東曰油蠟局橋, 舊呼新橋. 興福坊東曰鹽橋, 上奉廣福孚順孚惠孚佑侯蔣相公祠, 橋東一直不通水, 旱橋名蒲橋. 咸淳倉前曰咸淳倉橋, 元名東橋. 御酒庫東曰塌坊橋. 仙林寺東曰仙林寺橋. 平糴倉北曰西橋. 豐儲倉後曰葛家橋. 東曰通濟橋, 俗名梅家橋. 御酒庫北曰小梅家橋. 通濟橋北曰田家橋, 次曰普濟橋. 白洋池前曰白洋池橋, 次曰方家橋. 自大河直通天宗水門, 至三閘也.

### 3. 소하(小河)의 다리들

종양궁교(宗陽宮橋)에서 서하(西河)로 돌아드는 다리를 일러 종공교(鍾公橋)라 하였고, 그 다음을 일러 청랭교(淸冷橋)라 하였다. 남와자(南瓦子) 앞에 있는 것을 일러 희춘교(熙春橋)라 하였고, 남와자 안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것을 일러 관폐령교(灌肺嶺橋)라 하였다. 통화방(通和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금파교(金波橋)라 하였고, 북쪽에 있는 것을 보제교(普濟橋),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교아교(巧兒橋)라 하였다. 보우방(寶佑坊)에 있는 것은 보우교(寶佑橋)라 하였다. 오간루항(五間樓巷)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형교(亨橋)라 하였다. 현복방(賢福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평진교(平津橋)라 하였는데 속칭 묘아교(猫兒橋), 즉 “고양이 다리”라 하였다. 그 다리의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사인교(舍人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영청교(永淸橋)라 하였다. 철선항(鐵線巷) 서쪽에 있는 것을 일러 수항교(水巷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신교(新橋)라 하였다. 희화방(羲和坊)에 있는 것을 일러 방윤교(芳潤橋)라 하였는데 원래 이름은 탄교(炭橋), 즉 “석탄 다리”였다. 무지방(武志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이박사교(李博士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붕교(棚

13) 간위(看位): 퍼레이드나 축제 등을 구경하기 위해 마련한 관람석.

橋)라 하였다. 신안방(新安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신안교(新安橋)라 하였다. 어가(御街)를 나와 북쪽으로 향한 것을 일러 중안교(衆安橋)라 하였고, 동쪽으로 향하여 연정방(延定坊)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러 아압교(鶯鴨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안국교(安國橋)라 하였는데 또 북교(北橋)라고도 불리었다. 그 다리의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군두사교(軍頭司橋)라 하였고, 회원방(懷遠坊)에서 어가(御街)를 나와 북쪽으로 향한 것을 일러 관교(觀橋)라 하였는데, 그 다리의 서쪽에 있는 것을 일러 공원교(貢院橋)라 하였고, 그 다음을 일러 번봉주교(藩封酒庫橋)라 하였다. 잡작원(雜作院) 서쪽에 있는 것을 일러 상부교(祥符橋)라 하였고, 그 다리의 서쪽에 있는 것을 일러 소신장교(小新莊橋)라 하였다. 보녕방(普寧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청원교(淸遠橋)라 하였다. 인화현(仁和縣)의 현청(縣衙) 건너편에 있는 것을 일러 인화창교(仁和倉橋)라 하였다. 인화현항(縣巷)의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만세교(萬歲橋)라 하였다. 육부(六部)의 가각고(架閣庫)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천수원교(天水院橋)라 하였고. 순우창(淳祐倉)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창교(倉橋)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일러 영신교(永新橋)라 하였다. 여항수문(餘杭水門)을 나서면 또한 삼갑수로(三閘水路)로 들어섰다. 그 중안교(衆安橋)와 관교(觀橋)는 모두 평탄하여 어가(御街)와 같은 높이였는데, 아마도 사계(四季)의 맹월(孟月)에 천자가 이 두 다리를 지나 서쪽으로 돌아 예부(禮部) 공원(貢院)길로 들어서 쪽 신장교(新莊橋)를 건너 경령궁(景靈宮)에 도달해 맹향(孟饗)의 의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3. 小河<sup>14</sup>)橋道

自宗陽宮橋轉西河曰鍾公橋，次曰清冷橋。南瓦子曰熙春橋。南瓦內投西曰

14) 소하(小河): 민간에서 시하(市河)라고도 불렀던 소하는 앞의 조에 나오는 대하와 비교해

灌肺嶺橋. 通和坊東曰金波橋, 北曰普濟橋, 次曰巧兒橋. 寶佑坊曰寶佑橋. 五間樓巷東曰亨橋. 賢福坊東曰平津橋, 俗名猫兒橋, 橋北曰舍人橋, 次曰永清橋. 鐵線巷西曰水巷橋, 次曰新橋. 義和坊曰芳潤橋, 元名炭橋. 武志坊東曰李博士橋<sup>15)</sup>, 次曰棚橋<sup>16)</sup>. 新安坊東曰新安橋. 出御街投北曰衆安橋, 投東入延定坊曰鶯鴨橋, 次曰安國橋, 又名北橋, 橋北曰軍頭司橋<sup>17)</sup>. 懷遠坊出御街投北曰觀橋, 橋之西曰貢院橋<sup>18)</sup>, 次曰藩封酒庫橋. 雜作院西曰祥符橋, 橋西曰小新莊橋. 普寧坊東曰清遠橋. 仁和縣衙對巷曰仁和倉橋. 縣巷北曰萬歲橋. 六部<sup>19)</sup>架閣庫<sup>20)</sup>前曰天水院橋. 淳祐

강폭이 좁긴 하였지만 항주성 최고의 변화가를 관통하였기에 다리도 많았다. 중앙궁교에서 대하와 나뉘어 서쪽으로 130m 정도 가다 바로 북쪽으로 꺾어 대하와 나란히 흐르다가 약 3.2km 지난 성북(城北)에서 다시 대하와 합류하였다. 대하와의 거리는 남쪽 지역은 가깝고 북쪽 지역은 조금 멀어진 하였으나, 최소 130m에서 최대 3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특히 남쪽 2km 구간은 항주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로 삼점과 오락장들이 즐비하였다.

- 15) 이박사교(李博士橋): 이박사는 이성전(李性傳)으로 자가 성지(成之)이며, 가정(嘉定) 4년(1211년) 진사에 합격했다. 《송사(宋史)》 권19에 그의 전(傳)이 있다. 무학박사(武學博士)로 《무지(武志)》를 편찬하였다.
- 16) 봉교(棚橋): 봉교는 그 근처에 있던 봉심사(棚心寺)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는 말이 있다. 그 곳에는 항주의 형장(刑場)도 있어 귀문관(鬼門關)이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남송 임안(臨安)의 저명한 출판사인 봉전북목친방(棚前北睦親坊)의 진씨경적포(陳氏經籍鋪)가 그 근처에 있었다.
- 17) 군두사교(軍頭司橋): 군두사는 어전총좌군두인견사(御前忠佐軍頭引見司)의 약칭이다. 송초에는 군두사(軍頭司)와 인견사(引見司)가 있었는데, 단공 2년(989년) 군두사를 어전총좌군두사(御前忠佐軍頭司)로, 인견사를 어전총좌인견사(御前忠佐引見司)로 바꾸었다가 후에 하나로 합쳤다. 군대의 검열·접견·분배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황제가 외출을 하였을 때 상소를 받게 되면 상소한 상황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도 책임졌다. 북송 때 구당관(勾當官)을 설치하였는데, 내시성도지(內侍省都知), 암반(押班)이나 무신합문통사사인(武臣閣門通事舍人) 이상으로 충당하였다. 남송 때 합문선찬사인(閣門宣贊舍人)으로 하여금 제점관(提點官)을 겸직하게 하였고, 합문지후(閣門祇候)로 하여금 간판관(幹辦官)을 겸직하게 하였다.
- 18) 공원교(貢院橋): 공원은 송대 과거 시험을 관장하던 기구와 과거 보는 곳을 모두 뜻하였다. 공원에서 는 각 로(路)와 주(州), 군소(軍所)에서 진사(進士)와 제과(諸科) 거인(舉人) 명단을 보내는 것을 담당하였고, 가정(家狀)·보장(保狀)·시험지 등도 맡아서 하였다. 이외에 응시자의 본적, 시험지 회수, 연령 등을 확인하는 일 등도 하였다. 공원 안에는 봉미원(封彌院)·등록원(謄錄院)·대독소(對讀所)·편배소(編排所)·별시소(別試所)·과락사(過落司) 등을 설치하였다. 인종(仁宗) 이전에는 예부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태상시나 국자감(國子監), 무성묘(武成廟) 등을 과거장으로 빌려 썼다. 송녕 연간에서 정화 연간에 이르기까지 예부와 각주(各州)에 모두 공원을 설치하였다.
- 19) 육부(六部): 수당(隋唐)에서 청(淸)에 이르기까지의 중앙행정기구로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여섯 개 부서를 말한다.
- 20) 가각고(架閣庫): 송원(宋元) 시기 서적과 문서들을 보관하였던 기구.

倉前曰倉橋，次曰永新橋。出餘杭水門亦由於三閘水路也。其衆安與觀橋皆平坦，與御街同，蓋四孟<sup>21)</sup>車駕經由此兩橋轉西禮部貢院路，一直過新莊橋，詣景靈宮行孟饗禮<sup>22)</sup>也。

#### 4. 서하(西河)의 다리들

중안교(衆安橋)에서 서쪽으로 돌아 있는 것을 일러 중락교(衆樂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일러 하와자교(下瓦子橋)라 하였다. 기왕부(沂王府)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결박교(結縛橋)라 하였다. 십관택(十官宅)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석회교(石灰橋)라 하였고, 그 다음을 팔자교(八字橋)라 하였는데, 원래는 세부교(洗麩橋)라 불렀었다. 남쪽에 있는 것을 마가교(馬家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만고교(鞞鼓橋)라 하였다. 청하방(清河坊)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홍교(洪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정정교(井亭橋), 시수방교(施水坊橋)라 하였다. 서횡가(西橫街)에는 곡부(曲阜)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로는 배가 지나다닐 수가 없었고, 서호(西湖)의 물이 흘러나오는 수맥이 육방원(六房院) 뒤의 석교(石橋) 아래에 있었다. 한부(韓府) 남쪽에 있는 것을 일러 군장교(軍將橋)라 하였고, 그 다음 것을 삼교자(三橋子)라 하였다. 서루주교(西樓酒庫) 앞에 있는 것을 일러 혜천교(惠遷橋)라 하였는데, 민간에서는 금차고교(金叉庫橋)라 불렀다. 나한동항(羅漢洞巷) 맞은편에 있는 것을 일러 시랑교(侍郎橋)라 하였는데, 예전에 염(廉)씨 성에 이름은 낭숙(郎叔)이란 시랑(侍郎)이 여기 살았었는데 현명하고 인덕이 있어 그 덕이 일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었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여 그를 기리기 위해

21) 사맹(四孟): 음력으로 사계절 중 매 첫 번째 오는 달의 통칭으로 맹춘(孟春: 정월), 맹하(孟夏: 4월), 맹추(孟秋: 7월), 맹동(孟冬: 10월)을 말한다.

22) 맹향례(孟饗禮): '향(饗)'은 제물을 차려 조상 및 여러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황제가 매년 사계절의 '첫째 달(孟)'에 제사를 거행하기에 맹향례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남진도관(南眞道館)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시가교(施家橋)라 하였다. 단하두(斷河頭) 오현사(五顯祠) 뒤에 있는 것을 일러 보제교(普濟橋)라 하였다. 다시 팔자교(八字橋)에서 서쪽으로 돌면 있는 것을 청호교(淸湖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흑교(黑橋)라 하였다. 좌장고(左藏庫) 앞에 있는 것을 좌장고교(左藏庫橋)라 하였다. 양부마궁(楊駙馬宮) 앞에서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안제교(安濟橋)라 하였다. 반랑항로(潘閭巷路)와 양가로(洋街路)를 잇는 것을 일러 안복교(安福橋)라 하였는데, 쪽 가면 이전의 태학(太學)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정가교(丁家橋)라 하였다. 괘사거묘(霍史居廟)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장생노인교(長生老人橋)라 하였다. 전당현항(錢塘縣巷)에 있는 것을 현교(縣橋)라 하였고, 진주하(眞珠河)에 걸쳐 있는 것을 진주하교(眞珠河橋)라 하였는데, 이 두 다리 밑으로는 배가 다닐 수 없었다. 국자감(國子監) 앞에 있는 것을 일러 기가교(紀家橋)라 하였고, 국자감 뒤에 있는 것은 거교(車橋)라 하였으며, 옆에 있는 것은 청룡교(靑龍橋)라 하였다. 다탕항(茶湯巷) 서쪽에 있는 것을 일러 장수교(長壽橋)라 하였는데, 옛 이름은 양고교(楊姑橋)였다. 만진관(萬鎭觀)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신장교(新壯橋)라 하였다. 경령궁(景靈宮) 앞에 있는 것을 일러 거마교(車馬橋)라 하였다. 진성창(鎭城倉) 서쪽에 있는 것을 일러 사고교(師姑橋)라 하였다. 여항문(餘杭門) 안에 있는 것을 중정교(中正橋)라 하였는데, 원래는 사교(斜橋)로 불렸었다. 여항수문(餘杭水門) 앞에 있는 것을 조교(釣橋)라 하였는데 옛 이름은 편교(便橋)였다. 수로(水路)는 여항수문을 나서 삼갑(三閘)과 통하였다.

#### 4. 西河<sup>23)</sup>橋道

自衆安橋轉西曰衆樂橋，次曰下瓦子橋<sup>24)</sup>，沂王府北曰結縛橋，十官宅<sup>25)</sup>前

23) 서하(西河): 서하와 다음 조에 나오는 소서하(小西河)를 통칭하여 청호하(淸湖河)라고 부

曰石灰橋<sup>26)</sup>, 次曰八字橋, 元呼洗麩橋. 南曰馬家橋, 次曰鞞鼓橋. 清河坊東曰洪橋, 次曰井亭橋, 曰施水坊橋. 西橫街有橋名曲阜, 其橋不通舟楫, 水脈自六房院<sup>27)</sup>後石橋下, 湖水從此流出也. 韓府南曰軍將橋, 次曰三橋子. 西樓酒庫前曰惠遷橋, 俗呼金叉庫橋. 羅漢洞巷對曰侍郎橋, 向有侍郎姓廉, 名郎叔, 居此, 又有賢德及人, 里巷賢之, 以盛名以橋記之. 南眞道館前曰施家橋. 斷河頭五顯祠後曰普濟橋. 再自八字橋轉西曰清湖橋, 次曰黑橋. 左藏庫<sup>28)</sup>前曰左藏庫橋. 楊駙馬宮前投西曰安濟橋. 潘閭巷路通接洋街路曰安福橋, 直抵故太學<sup>29)</sup>, 次曰丁家橋. 霍史居廟前曰長生老人橋. 錢塘縣巷曰縣橋, 跨眞珠河曰眞珠河橋, 此兩橋俱不通舟. 國子監<sup>30)</sup>前

른다. 서호의 물을 끌어들이어 항주성 안 서쪽 지역의 수운(水運)을 담당하였고, 동쪽의 소하와 북쪽의 대운하(大運河)와도 연결되는 수로이다. 소하와 중앙교(衆安橋)에서 갈려 서쪽으로 흐르다 왼쪽으로 꺾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종점은 오산(吳山) 북쪽 기슭의 동서를 이어주는 주요 도로와 가까웠고, 단하두(斷河頭)라고 불리던 곳까지 전체 약 1.5km 정도의 길이였다. 이 서하는 북쪽의 팔자교(八字橋)에서 서북쪽으로 지류가 흘러 나왔는데 이 수로는 반원형을 그리면서 전당현청의 동쪽과 경령궁(經靈宮) 앞을 지나 북관(北關)의 여항수문에 이르렀다.

- 24) 하와자교(下瓦子橋): 와자는 와시(瓦市), 와사(瓦舍), 와사(瓦肆) 등으로도 기록되었다. 송원시기 대도시 안에 있는 오락 장소의 총칭으로 연극 무대, 기생집, 도박장 등을 다 포괄하였다. 남송시기 하와자는 북와(北瓦)로도 불렸는데 임안 최대의 와자였다.
- 25) 십관택(十官宅): 십관택은 항주성 안에 있던 여러 채의 관사 중 하나로 지금의공무원 관사 같은 것이다.
- 26) 석탄교(石灰橋): 석탄교에는 남송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문인인 석호(石湖) 범성대(范成大)의 집이 있던 곳이었기에 후대에는 석호교로 통용되었다.
- 27) 육방원(六房院): 육방원은 권10의 <여러 관사>에 보이는데, 중서문하후성(中書門下後省) 소속 고급 서리(胥吏)의 관사이다.
- 28) 좌장고(左藏庫): 좌장고는 중앙 호부(戶部)의 가장 중요한 재고(財庫)로 좌측에 있었기에 좌장고라 한 것이다.
- 29) 태학(太學): 송대의 최고 교육 기관이다. 한 무제(武帝) 때 처음으로 태학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 역대 왕조들이 계속 그 제도를 이어받았다. 송 인종(仁宗) 경력(慶曆) 4년(1044) 태학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생(舍生) 200명을 두었으며, 종8품 이하 관원의 자식과 평민의 자식 중 우수한 자들을 골라 뽑았다. 신종(神宗) 때 그 정원을 늘리고 삼사법(三舍法)을 실행하였다. 삼사법이란 처음 입학하였을 때는 외사(外舍)에 있고, 심사를 거쳐 내사(內舍)와 상사(上舍)로 차례차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휘종(徽宗) 때 벽옹(辟雍)을 외학(外學)으로 설치하고 외사생(外舍生)은 모두 외학에 들어가게 하였다. 북송이 망하자 태학도 폐지되었다가 남송 소흥(紹興) 연간에 중건되었다. 태학의 학관(學官)으로는 국자제주(國子祭主), 사업(司業), 박사(博士), 승(丞), 주부(主簿), 정(正), 록(錄) 등이 있다.
- 30) 국자감(國子監): 송대의 최고 교육 기관으로 송나라는 오대(五代) 후주(後周)의 제도를 이어 국자감을 설치하고 7품 이상 관리의 자제를 그 학생으로 하였다. 단공(端拱) 2년(989년) 국자감을 국자학(國子學)으로 바꾸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이름으로 돌아왔다. 경력 4년(1044년) 태학을 만들었고, 국자감은 전국국의 학교를 관장하는 총기구가

曰紀家橋, 監後曰車橋, 側曰靑龍橋. 茶湯巷西曰長鎮橋, 舊名楊姑橋. 萬鎮觀前曰新壯橋. 景靈宮前曰車馬橋. 鎮城倉西曰師姑橋. 餘杭門裏中正橋, 元呼斜橋. 水門前曰釣橋, 舊名便橋. 水路出餘杭水門, 通三閘也.

## 5. 소서하(小西河)의 다리들

서루주교(西樓酒庫) 옆 삼교(三橋)의 남쪽에서 혜천교(惠遷橋)로 들어서서 쪽으로 가다 혜천정(惠遷井)을 지나면 나오는 것을 일러 태상시후소교(太常寺後小橋)라 하였고, 그 다음을 대관아후문교(臺官衙後門橋)라 하였다. 육방성원(六房省院)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일러 여의교(如意橋)라 하였다. 도첩고(度牒庫) 후항(後巷)에 있는 것을 영안교(永安橋)라 하였는데, 바로 오성묘교(五聖廟橋)를 말하는 것이었고, 서쪽에 있는 것을 도자교(渡子橋)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송금삼지(誦金三池)의 가운데를 가르는 용금교(湧金橋)가 있었다. 용금문(湧金門) 북쪽의 섭자정(鑷子井)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섭자정교(鑷子井橋)라 하였고, 장부(張府) 뒤쪽 유가원(兪家園) 동쪽에 있는 것을 영안교(永安橋)라 하였으며, 육방(六房) 후문(後門)에 있는 것을 석교(石橋)라 하였는데, 이 세 다리 밑으로는 배가 다닐 수 없었다. 서호의 물이 다리 밑 지하에 있는 배수구를 넘쳐흐르면, 곡부교(曲阜橋) 밑으로 흘러들어가 서하(西河)로 나왔다. 유가원(兪家園)의 구관택(九官宅)에 있는 것을 일러 백련화교(白蓮花橋)라 하였고, 그 댁의 북쪽에서 서항(西巷)으로 향한 것을 일러 홍련화교(紅蓮花橋)라 하였는데, 두 다리는 모두 물이 없는 곳에 세워진 다리(旱橋)에 불과하였다. 또 도자교(渡子橋)에서 남쪽으로 돌아 전운사(轉運司) 청사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보안교(普安橋)라 하였다. 유거항(油車巷)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되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과거에 응시하도록 천거하고, 교사(校舍)를 수리, 건조하고, 건물을 지어 서적을 보관하고, 서적을 출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덕진교(德鎮橋)라 하였다. 부학(府學)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능가교(凌家橋)라 하였다. 사이절사(謝二節使)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정안교(定安橋)라 하였다. 자유거(慈幼居) 앞에 있는 것을 일러 계자교(戒子橋)·누점무교(樓店務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유복교(流福橋)라 하였는데 원래는 갑아교(開兒橋)로 불렸었다. 임안부(臨安府) 치소(治所)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주교(州橋)라 불렀는데 민간에서는 오래교(懷來橋), 즉 “괴로움이 오는 다리”라 하였는데, 아마도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 5. 小西河<sup>31)</sup>橋道

自西樓酒庫側三橋南入惠遷橋西, 過惠遷井, 曰太常寺<sup>32)</sup>後小橋, 次曰臺官衙後門橋. 六房省院<sup>33)</sup>對曰如意橋. 度牒庫後巷曰永安橋, 卽五聖廟橋, 西曰渡子橋, 次曰湧金橋, 界于誦金三池之中矣. 湧金門北沿城鑷子井東曰鑷子井橋, 張府後俞家園東曰永安橋, 六房後門曰石橋, 此三橋俱不通舟. 湖水溢於橋下暗溝<sup>34)</sup>, 注於

31) 소서하(小西河): 삼교(三橋)의 남쪽에서 물길에 갈려 서호 쪽으로 350m 가다, 도자교(渡子橋)에서 왼쪽으로 꺾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운사(轉運司) 등의 관서를 끼고 약 800m 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꺾어 임안부(臨安府) 문 앞까지 이르는 하천. 소서하는 수운(水運)보다는 서호의 깨끗한 물을 항주성 안 서쪽 지역의 수로로 보내주는 역할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32) 태상시(太常寺): 관서명으로 당대 제도를 계승하여 송대에도 설치하였다. 원풍 연간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사직(社稷) 및 주대(周代) 태공망(太公望)의 묘소인 무성왕묘(武成王廟) 등의 관리를 맡아 하였다. 판시(判寺)를 두기는 하였으나 상주 관리는 없었다. 송나라 초에 또 태상예원(太常禮院)을 설치하였는데, 비록 태상시 소속이긴 하였으나 서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 강정(康定) 원년(1040년) 판시와 동판시(同判寺)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의례와 관련된 일을 겸하게 하였다. 원풍 연간 제도를 바꾼 후 태상경(太常卿)을 장관으로, 소경(少卿)을 부장관으로 하고, 승(丞)은 태상시의 일을 돕도록 하였다. 예악(禮樂)·교묘(郊廟)·사직(社稷)·단유(壇壝)·능침(陵寢)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융흥(隆興) 원년(1163년) 광록시(光祿寺)가 태상시에 병합되었다(《송사(宋史)》 <직관지(職官志)> 4).

33) 육방성원(六房省院): 상서육부(尙書六部)와 관계가 있는 고급 서리들의 관사.

曲阜橋下, 流出西河. 兪家園九官宅曰白蓮花橋, 宅北投西巷曰紅蓮花橋, 兩橋俱早橋<sup>35)</sup>耳. 又自渡子橋轉南轉運司衙前曰普安橋. 油車巷對曰德鎮橋. 府學<sup>36)</sup>前曰凌家橋. 謝二節使<sup>37)</sup>前曰定安橋. 慈幼居前曰戒子橋·樓店務橋, 次曰流福橋, 元呼闌兒橋. 臨安府治前曰州橋, 俗名懷來橋, 蓋因到訟庭者, 到此心已悔也, 故以此名呼之.

## 6. 치소(治所)가 있는 성남상(城南廂)의 다리들

성남상(城南廂) 관할 지역의 다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백담령(白塔嶺) 아래에 있는 다리로 진릉(進隆)·아문(兒門) 안에 있는 하가교(夏家橋)가 있었다. 교목장(交木場) 뒤에 있는 것은 양과양반교(楊漣洋泮橋)라 하였고, 동쪽에 있는 것을 이가교(李家橋)라 하였다. 성남상의 치소(治所) 남쪽에 있는 것을 일러 양반교(洋泮橋)라 하였다. 마창항(馬倉巷)의 입구에 있는 것은 홍교자(紅橋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미정방(美政坊)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미정교(美政橋)라 하였다. 설배고(雪醅庫) 동쪽에 있는 것을 남신교(南新橋)라 하였는데, 민간에서는 주교(朱橋)라 불렀다. 가회문(嘉會門) 밖에 있는 것을 일러 이섭교(利涉橋)라 하였다. 주고항(酒庫巷) 안에 있는 것을 상양가교

34) 암구(暗溝): 지하 배수구.

35) 한교(旱橋): 물이 마른 내 위에 세워진 다리. 우메하라 카오루(梅原郁)는 그의 《몽랑록》 1 325쪽 주12)에서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 권14에 의하면 명 성화(成化) 12년 서호의 물을 끌어 홍련화교(紅蓮花橋), 백련화교(白蓮花橋)를 지나가게 하여 곡부교(曲阜橋)에서 서호의 다른 물길과 합쳐지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후세까지 수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6) 부학(府學): 고대 관학(官學)의 일종으로 부(府) 단위 행정기관에서 설립하였다. 송대 사마광(司馬光)의 《의학교공기상(議學校貢舉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 개봉부 거인들은 예전에는 부학이 없어 국가감에서 배우게 하였다[其開封府舉人, 舊無府學, 并令寓教於國子監.]”

37) 사이절사(謝二節使): 남송 최후 정권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이종(理宗)의 황후 사태황(謝太皇)의 일족으로서, 절도사(節度使)가 된 사기(謝巽)와 사식(謝埴).

(上梁家橋)라 하였고, 안가루(顔家樓) 맞은편 항(巷)에 있는 것을 일러 하양가교(下梁家橋)라 하였다. 절강정(浙江亭) 옆에 있는 것을 과포교(跨浦橋)라 하였고, 편문(便門) 밖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횡하교(橫河橋)라 하였다. 포행(布行) 앞에 있는 것도 역시 횡하횡교(橫河橫橋)라 불렀다. 상단(鯨團) 앞에 있는 것을 혼수갑교(渾水閘橋)라 하였다. 남외고(南外庫) 남쪽에 있는 것을 일러 소공교(蕭公橋)라 하였다. 대랑항(大郎巷) 입구에 있는 것을 상니교(上泥橋)라 하였다. 남외주고(南外酒庫) 맞은 편 거리에 있는 것을 일러 청수갑교(淸水閘橋)라 하였다. 후조문(候潮門) 밖 남쪽에 있는 것을 중혜교(衆惠橋)라 하였다. 호성보군(護聖步軍) 남쪽에 있는 것을 하니교(下泥橋)라 하였다. 후조문(候潮門) 밖에서 동쪽으로 쪽가면 나오는 것을 상라목교(上羅木橋)라 하였는데, 보제교(普濟橋)라고도 하였다. 백기채(白旗寨) 맞은편 거리(巷)에 있는 것을 일러 하라목교(下羅木橋)라 하였다. 호성(護聖)의 상교장문(上教場門) 동쪽에 있는 것을 상홍교(上洪橋)라 하였고, 중교장문(中教場門) 동쪽에 있는 것을 중교장교(中教場橋)라 하였으며, 하교장문(下教場門) 동쪽에 있는 것은 시시교(柴市橋)라 하였다. 성가항(盛家街) 동쪽에 있는 것을 제중교(濟衆橋)라 하였다. 묘정사(妙靜寺)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제가교(諸家橋)라 하였는데, 다리의 서쪽에 있는 것은 보안갑교(保安閘橋)라 하였다. 보안수문(保安水門) 밖에 있는 것을 보안교(保安橋)라 하였다. 신문(新門) 입구 문밖 부경원(富景園)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승선교(昇仙橋)라 하였는데, 이 다리는 마른 강 위에 걸쳐진 다리로 동쪽으로 쪽 가면 남신초교(南新草橋)가 나왔다. 성 동쪽의 낙가도(駱家跳)에 있는 것을 일러 낙가교(駱家橋)라 하였고, 서수채(西首寨) 앞에 있는 것을 마군교(馬軍橋)라 하였으며, 다리 동쪽 채(寨)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보군교(步軍橋)라 하였다. 선응사(善應寺)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사판교(四板橋)라 하였고, 그 다리의 서쪽에 있는 것을 만진교(萬鎭橋)라 하였는데, 여가교(呂家橋)라고도 하였다. 경룡관(景隆觀) 뒤에 있는 것을 일러 통리교(通利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미시교(米市橋)라 하였다. 노아영(老兒營) 뒤에 있는 것을 일러 오류원교(五柳園橋)라 하였고, 그 북쪽에 있는 것을

복제교(福濟橋)라 하였는데, 광택(廣澤)이라고도 하였다. 숭신문(崇新門) 밖에서 동쪽으로 쪽 가면 있는 것을 장가교(章家橋)라 하였고, 북쪽에 있는 것을 순우교(淳祐橋)라 하였다. 공성영(拱聖營)의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나사교(螺螄橋)라 하였다. 소분장(小粉場)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보안교(普安橋)라 하였는데, 횡하교(橫河橋)라고도 하였고, 그 동쪽에 있는 것은 광제교(廣濟橋)라 하였다. 포장항(蒲場巷) 군순포(軍巡鋪)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안제교(安濟橋)라 하였다. 유희교장(遊奕教場) 문앞에 있는 것을 일러 교장문교(教場門橋)라 하였고, 그 다리의 동쪽 횡하군순포(橫河軍巡鋪) 앞에 있는 것을 보은교(報恩橋)라 하였다. 나사교(螺螄橋) 북해행(北蟹行)에 있는 것을 일러 채호교(蔡湖橋)라 하였다. 유희군우성전(遊奕軍佑聖殿) 뒤에 있는 것을 일러 유희채교(遊奕寨橋)라 하였고, 그 다리의 북쪽에 있는 것은 안영교(安榮橋)라 하였으며, 남로(南路)에 있는 것은 소채호교(小蔡湖橋)라 하였다. 전전도지휘사사(殿前都指揮使司)의 쌍채문(雙寨門)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전군교(前軍橋)라 하였고, 동청문(東靑門) 밖에서 쪽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것을 채시교(菜市橋)라 하였다. 선봉군(選鋒軍) 동쪽에 있는 것을 일러 태평교(太平橋)라 하였고, 그 북쪽에 있는 것을 단평교(端平橋)라 하였다. 동청문(東靑門)에 있는 것을 십선교(十善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황교(黃姑橋)라 하였다. 간산문(艮山門)의 동쪽에 있는 것을 순응교(順應橋)라 하였는데, 옛 이름은 폐자교(壩子橋)라 하였다. 인화현(仁和縣) 현위(縣尉)의 관청 앞에 있는 것을 무성교(無星橋)라 하였다. 법명사(法明寺)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낙타교(駱駝橋)라 하였는데, 절문 밖 주마당(走馬塘)에 있는 것은 새교(壘橋)라 하였다. 인화현 현청(縣廳) 뒤에 있는 것을 일러 공가교(龔家橋)라 하였다. 사하(沙河)의 한 모퉁이에 있는 수륙사(水陸寺) 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위가교(韋家橋)라 하였고, 그 다리 옆에 있는 것을 광도교(廣度橋)라 하였다. 주마당(走馬塘) 동쪽 석두문포(石斗門鋪) 앞에 있는 것을 석두문교(石斗門橋)라 하였다. 인화현 현청 옆에 있는 것을 목판교(木板橋)라 하였다. 사하의 한 모퉁이에 있는 것을 송가교(宋家橋)라 하였다. 성 동쪽 정가원(鄭家園) 뒤에 있는 것을 일러 웅태교(翁泰

橋)라 하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풍가교(馮家橋)·장가교(章家橋)·요점교(姚店橋)라 하였다. 정가원 뒤 맥장묘(麥莊廟) 앞에 있는 것을 일러 맥장교(麥莊橋)라 하였다. 성 동쪽 구리송대로(九里松大路)에 있는 것을 일러 장목묘교(樟木廟橋)라 하였고, 사당[廟] 앞에 있는 것을 일러 강가교(江家橋)라 하였다. 성 동쪽 노가(盧家) 설음(雪窩)의 남쪽에 있는 것을 행인교(行人橋)라 하였다. 주마당(走馬塘) 범가촌(范家村)에 있는 것을 장나아교(張娜兒橋)라 하였다. 요두문포(姚斗門鋪)에 있는 것을 신당교(新塘橋)라 하였다. 석두문포(石斗門鋪)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채가대교(蔡家大橋)라 하였다. 성 동쪽 채가촌(蔡家村)에 있는 것을 채가소교(蔡家小橋)라 하였다. 고담만(高塘灣) 횡당로(橫塘路)에 있는 것을 일러 요마사교(姚馬四橋)라 하였다. 성 동쪽 관원(官園) 안에 있는 것을 일러 압사교(鴨舍橋)라 하였다. 다리의 대로(大路)에 있는 것을 이가교(李家橋)라 하였다. 관원(官園) 안 북쪽에 있는 것을 손가교(孫家橋)라 하였다. 금가촌(金家村)에 있는 것을 일러 지방교(豬坊橋)라 하였다. 요두문포(姚斗門鋪) 당가촌(唐家村)에 있는 것을 자복교(資福橋), 그리고 소자복교(小資福橋)라 하였다. 두문(斗門) 동남쪽 육가촌(陸家村)에 있는 것을 일러 육가교(陸家橋)라 하였고, 심가당(沈家塘) 입구에 있는 것을 구가교(歐家橋)라 하였다. 두문(斗門) 남쪽 대로에 있는 것을 승선교(升仙橋)라 하였다. 간경사(看經寺) 앞에 있는 것을 일러 간경교(看經橋)라 하였다. 성 동쪽 호진관(胡陳坂) 등의 장소에 다리가 모두 아홉 개 있었는데 그 이름을 각각 범가교(范家橋)·서가교(徐家橋)·이가교(李家橋)·진가교(陳家橋)·두가교(杜家橋)·요가교(姚家橋)·중가교(仲家橋)·보녕교(普寧橋)·하상교(下廂橋)라 하였다. 오리당로(五里塘路) 입구에 있는 것을 장가교(張家橋)라 하였는데, 그 다리 옆에 있는 것을 보살교(菩薩橋)라 하였다. 수승사(殊勝寺)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수승교(殊勝橋)라 하였다. 오리당의 대로에 있는 것을 일러 왕가교(王家橋)라 하였다. 행인암(行人菴) 옆에 있는 것을 일러 엄가교(嚴家橋)라 하였다. 당(塘)의 동쪽에 있는 것을 신교(新橋)라 하였고, 그 다리 옆에 있는 것을 일러 포가교(鮑家橋)라 하였으며, 당의 서쪽에 있는 것을 비가교(飛家橋)라 하였다.

6. 倚郭<sup>38)</sup>城南橋道

城南所管地界, 自白塔嶺下橋曰進隆兒門裏夏家橋. 交木場後曰楊婁洋洋橋, 東曰李家橋. 本廂治所南曰洋洋橋. 馬倉巷口名紅橋子. 美政坊前曰美政橋. 雪醅庫東曰南新橋, 俗呼朱橋. 嘉會門外曰利涉橋. 酒庫巷內曰上梁家橋, 顏家樓對巷曰下梁家橋. 浙江亭<sup>39)</sup>側跨浦橋, 便門外投南橫河橋. 布行前亦名橫河橫橋. 鰲團前曰渾水閘橋. 南外庫南曰蕭公橋. 大郎巷口曰上泥橋. 南外酒庫對巷曰清水閘橋. 候潮門外南曰衆惠橋. 護聖步軍<sup>40)</sup>南曰下泥橋. 候潮門外直東曰上羅木橋, 又名普濟. 白旗寨對巷曰下羅木橋. 護聖上教場門東曰上洪橋, 中教場門東曰中教場橋, 下教場門東曰柴市橋. 盛家街<sup>41)</sup>東曰濟衆橋. 妙靜寺北曰諸家橋, 橋西曰保安閘橋. 保安水門外曰保安橋. 新門口門外富景園<sup>42)</sup>東名昇仙橋, 此是旱橋, 一直向東, 曰南新草橋. 城東駱家跳曰駱家橋, 西首寨前曰馬軍橋, 橋東寨前曰步軍橋. 善應寺北曰四板橋, 橋西曰萬鎮橋, 又名呂家橋. 景隆觀後曰通利橋, 次曰米市橋. 老兒營後曰五柳園橋, 北曰福濟橋, 又名廣澤. 崇新門外直東曰章家橋, 北曰淳祐橋. 拱聖營東

38) 의곽(倚郭): '의곽(倚廓)'이라고도 하는데 송원 시기 주(州) 로(路) 중 치소(治所)가 있는 현(縣)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성곽[郭]에 '의지[倚]'한다는 의미로, 항주성 밖에서도 성벽과 접한 시가 지역은 성내에 준하는 행정 등의 활동이 있었다. 남송 시대에는 이를 성남(城南), 성북(城北)의 두 상(廂)으로 구분하였다. 성남상은 치소를 가회문(嘉會門) 밖, 양반교(洋洋橋)의 동쪽에 두었고, 육화탑(六和塔)의 북쪽에서 간산문(艮山門)에 이르는 항주성의 동남, 동, 동북의 시역(市域)을 담당하였다.

39) 절강정(浙江亭): 남송 시기 외국 사신 및 고위 관리가 전당강(錢塘江) 조수를 관람하던 장소였다. 원래는 장정역(樟亭驛)이란 역참(驛站)으로 항주성 안 운하의 물은 이곳으로부터 들어왔다.

40) 호성보군(護聖步軍): 전전사보군(殿前司步軍)은 열 개의 부대로 나뉘어 있었다. 전후(前後), 좌중우(左中右) 보군 다섯 부대 외에 호성(護聖), 신용(神勇), 정선(正選), 책선(策選), 유희(遊奕)의 다섯 부대가 그것으로 항주성 밖 동쪽에는 이러한 부대들의 군영과 훈련장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

41) 향(街): '향(街)'은 '향(巷)'과 같은 뜻으로 인가(人家)가 양쪽으로 들어선 좁은 길을 의미한다.

42) 부경원(富景園): 신문(新門) 밖에 있는 어원(御園)으로 권19 <원유(園囿)> 조에 나온다.

曰螺螄橋. 小粉場前曰普安橋, 又名橫河橋, 東曰廣濟橋. 蒲場巷軍巡鋪前曰安濟橋. 遊奕教場門曰教場門橋, 橋東橫河軍巡鋪前曰報恩橋. 螺螄橋北蟹行曰蔡湖橋. 遊奕軍佑聖殿後曰遊奕寨橋, 橋北曰安榮橋, 南路曰小蔡湖橋. 殿司<sup>43)</sup>雙塞門前曰前軍橋, 東青門外直東曰菜市橋. 選鋒軍東曰太平橋, 北曰端平橋, 東青門曰十善橋, 次曰黃姑橋. 艮山門東曰順應橋, 舊名壩子橋. 仁和尉司前曰無星橋. 法明寺前曰駱駝橋, 寺門外走馬塘曰壘橋. 尉司後曰龔家橋. 沙河角頭<sup>44)</sup>水陸寺北曰韋家橋, 橋側曰廣度橋. 走馬塘東石斗門鋪前曰石斗門橋. 尉司側曰木板橋, 沙河角頭曰宋家橋. 城東鄭家園後曰翁泰橋, 次曰馮家橋·章家橋·姚店橋. 園後麥莊廟前曰麥莊橋. 城東九里松大路曰樟木廟橋, 廟前曰江家橋. 城東盧家雪窰南曰行人橋. 走馬塘范家村曰張娜兒橋. 姚斗門鋪曰新塘橋. 石斗門鋪前曰蔡家大橋. 城東蔡家村曰蔡家小橋. 高塘灣橫塘路曰姚馬四橋. 城東官園裏曰鴨舍橋. 橋大路曰李家橋. 官園裏北曰孫家橋. 金家村曰猪坊橋. 姚斗門鋪唐家村曰資福橋, 曰小資福橋. 斗門東南陸家村曰陸家橋, 沈家塘口曰歐家橋. 斗門南大路曰升仙橋. 看經寺前曰看經橋. 城東胡陳畝等處, 其橋有九, 名曰范家·徐家·李家·陳家·杜家·姚家·仲家橋·普寧橋·下廂等橋. 五里塘路口張家橋, 橋側曰菩薩橋. 殊勝寺前曰殊勝橋. 塘大路曰王家橋. 行人菴側曰嚴家橋. 塘東曰新橋, 橋側曰鮑家橋, 塘西曰飛家橋.

## 7. 치소가 있는 성북상(城北廂)의 다리들

성북상(城北廂) 관할 지역의 다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전당현

43) 전사(殿司): 전전도지휘사사(殿前都指揮使司)를 가리키는 것으로 송대의 군사 기구였다. 《송사》 <직관지> 6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도지휘사, 부도지휘사, 도우후가 각각 한 명씩 있다. 궁궐 앞에 있는 여러 당직자 및 보병과 기병들에 속한 여러 지휘들의 명단을 관장하였는데, 이들의 통제, 훈련, 당직, 수비, 진출, 상벌 등의 일들을 모두 통합 관리하였다[都指揮使, 副都指揮使, 都虞侯各一人, 掌殿前諸班直及步騎諸指揮之名籍, 凡統制, 訓練, 番衛, 戍守, 遷補, 賞罰, 皆總其政令].”

44) 각두(角頭): 모퉁이. 외진 곳.

(錢塘縣) 현위(縣尉) 관청의 서쪽 수마두(水磨頭)에 있는 것을 일러 석함교(石函橋)라 하였는데, 서석두교(西石頭橋)라고도 하였다. 서호(西湖) 고산로(孤山路)에 있는 것을 일러 보우교(寶佑橋)라 하였는데, 민간에서는 단교(斷橋)라 하였다. 고산로 가운데 있는 것을 함벽교(涵碧橋)라 하였다. 임화정(林和靖) 처사의 고거(故居)에 있는 것을 일러 처사교(處士橋)라 하였다. 연상사성관(延祥四聖觀)의 서쪽에 있는 것을 서림교(西林橋)라 하였다. 소제(蘇堤) 남쪽에서 첫 번째 다리를 영파(映波)라 하였고, 두 번째를 쇠란(鎖瀾), 세 번째를 망산(望山), 네 번째를 압제(壓堤), 다섯 번째를 동포(東浦), 여섯 번째를 과홍(跨虹)이라고 하였다. 선현당(先賢堂) 앞에 있는 다리를 일러 원공교(袁公橋)라 하였는데, 아마도 부윤(府尹) 원대자(袁大資)가 선현당을 조성하고, 이 다리를 건설하였기에 이를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붙인 것일 것이다. 국원(麴院)의 신제로(新堤路)에 있는 조그만 다리를 일러 소신제교(小新堤橋)라 하였다. 국원대로(麴院大路)에서 동쪽으로 향하면 행춘교(行春橋)가 있었다. 구리송(九里松)의 좌군교장(左軍教場) 대로(大路)의 서쪽에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도 행춘교(行春橋)라 하였다. 비래봉(飛來峰) 가는 길 입구에 있는 것을 일러 합간교(合澗橋)라 하였다. 용정(龍井)에 가는 길 입구에 있는 것을 귀은교(歸隱橋)라 하였는데, 아마도 소동파(蘇東坡)는 내를 쉽게 건너고자 이 다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맥령(麥嶺) 서쪽 태청궁(太清宮) 앞에 있는 것을 일러 효의교(孝義橋)라 하였다. 맥령 입구 채(寨) 앞에 있는 것을 신하교(新河橋)라 하였다. 맥령(麥嶺)에서 용정(龍井)까지 선안교(善安橋)·영안교(永安橋)·영복교(永福橋) 등 다리가 세 개 있었다. 묘가보(茆家步)에서 정가산(丁家山)까지 쌍정교(雙井橋)·정가산교(丁家山橋)·소정가산교(小丁家山橋) 등 다리가 세 개 있었다. 고려사(高麗寺) 옆에 있는 것을 일러 혜인교(惠因橋)라 하였다. 정자사(淨慈寺) 북쪽 경락원(慶樂園)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장교(長橋)라 하였다. 전호문(錢湖門) 밖 성벽을 따라 있는 연못[海子]의 모서리에 있는 것을 일러 청화교(淸化橋)라 하였다. 청파문(淸波門) 밖에 있는 것을 유복수로교(流福水路橋)라 하였다. 취경원(聚景園) 앞에 있는 것을 취경교(聚景橋)라 하였다. 현

응관(顯應觀) 앞에 있는 것을 일러 현응관교(顯應觀橋)라 하였다. 용금문(湧金門) 밖 성북수구(城北水口) 위에 있는 것을 상국서교(相國西橋)라 하였다. 구곡소도(九曲小渡)에 있는 것을 함순신건교(咸淳新建橋), 구곡소경교(九曲昭慶橋)라 하였다. 대소경사(大昭慶寺)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소경광제교(昭慶廣濟橋)라 하였고, 그 절 서쪽 울타리 앞에 있는 것을 일러 책선채교(策選寨橋)라 하였다. 소경교장(昭慶教場) 서쪽에 있는 것을 교장교(教場橋)라 하였다. 그리고 교장교 북쪽에 있는 것을 승복교(崇福橋)라 하였다. 광산대로(霍山大路) 입구에 있는 것을 양방교(羊坊橋)라 하였다. 광산행궁항(霍山行宮巷) 입구에 있는 것을 보안교(保安橋)라 하였다. 양방향(羊坊巷)의 북쪽에 있는 것을 유수교(溜水橋)라 하였다. 정진사(精進寺) 북쪽에 있는 것을 소류수교(小溜水橋)라 하였다. 유수교 서북쪽에 있는 것을 일러 심가장교(沈家場橋)라 하였고, 그 다리 앞 일대에 있는 것을 안민교(安民橋)라 하였다. 서마승관음암(西馬塍觀音庵) 서쪽에 있는 것을 팔자교(八字橋)라 하였다. 운사(運司)의 죽목장(竹木場) 앞에 있는 것을 마군교(馬軍橋)라 하였다. 양각경(羊角埂) 위에 있는 다리 네 개를 일러 상니교(上泥橋)·하니교(下泥橋)·승진교(崇鎮橋)·염가교(閻家橋)라 하였다. 마승(馬塍)의 오분장(烏盆場)에 있는 것을 부춘교라 하였는데, 또 오분교(烏盆橋)라고도 하였다. 양각경(羊角埂) 서쪽 쌍채문(雙寨門)에 있는 것을 책선마군교(策選馬軍橋)라 하였다. 양각경의 서쪽으로 들어와 안쪽에 있는 것을 신용보인교(神勇步人橋)라 하였다. 본주(本州) 시원(試院) 앞에 있는 것들을 대통교(大通橋)·왕가교(王家橋)라 하였다. 시원 동쪽에 있는 것을 도고교(道姑橋)라 하였고, 시원 서쪽에 있는 것을 청수교(清水橋)라 하였다. 석당(石塘)의 동쪽에 있는 것을 서언교(西堰橋)·고당교(古塘橋)라 하였고, 동쪽에 있는 것을 방공교(方公橋), 서쪽에 있는 것을 관음교(觀音橋)라 하였다. 성 서쪽 동전국(銅錢局) 앞에 있는 것을 고당교(古塘橋)라 하였고, 고당(古塘) 안에 있는 것을 혜안교(惠安橋)라 하였다. 북곽무(北郭務) 앞에 있는 것을 여항교(餘杭橋)라 하였다. 천종수문(天宗水門) 밖에 있는 것을 상언교(上堰橋)라 하였다. 여항교 옆에 있는 것을 하언교(下堰橋)라 하였다. 북곽세무(北郭稅

務) 북쪽에 있는 것을 당병교(糖餅橋)라 하였다. 신용포(神勇鋪)에 있는 것을 과군교(過軍橋)라 하였고, 상갑(上閘) 남쪽에 있는 것을 상두문교(上斗門橋)라 하였다. 하두문(下斗門)의 서쪽에 있는 것을 영흥교(永興橋)라 하였고, 상갑(上閘)의 남쪽에 있는 것을 중두문교(中斗門橋)라 하였으며, 상갑(上閘)의 동쪽 육가장(陸家場) 앞에 있는 것을 천종잔고교(天宗棧庫橋)라 하였다. 여항문(餘杭門) 밖 상갑(上閘)의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을 상갑교(上閘橋)라 하였고, 상갑(上閘)의 북쪽, 중갑(中閘)의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을 중갑교(中閘橋)라 하였으며, 중갑(中閘)의 서쪽에 있는 것을 당가교(唐家橋)라 하였는데, 진안교(鎭安橋)라고도 불렀다. 중갑(中閘) 북쪽, 하갑(下閘)의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을 하갑교(下閘橋)·미시교(米市橋)라 하였고, 남쪽에 있는 것을 욕당교(浴堂橋)라 하였다. 하갑(下閘)의 서북쪽에 있는 것을 미시교(米市橋)라 하였고, 미시(米市) 안에 있는 것을 흑교(黑橋)라 하였다. 마선항(麻線巷)에 있는 것을 채련교(採蓮橋)라 하였다. 협성항(夾城巷) 입구에 있는 것을 원가교(袁家橋)·덕승교(德勝橋)라 하였고, 북쪽에 있는 것을 하두문교(下斗門橋)라 하였다. 구와자(舊瓦子) 뒤에 있는 것을 등가교(鄧家橋)라 하였는데 광리교(廣利橋)라고도 불렀다. 석패두항(石牌頭巷) 안에 있는 것을 원공교(袁公橋)라 하였다. 적장(糶場) 뒤에 있는 것을 예전에는 언교(堰橋)라 부르던 덕승교(德勝橋)라 하였는데, 태위(太尉) 한세충(韓世忠)이 불시에 묘부(苗傅)를 습격하였기에 항주 사람들이 칭송하여 이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장판교(長板橋), 양과교(楊漣橋), 그리고 하계창(下界倉) 뒤에 있는 것을 고가(高家)·양파(梁婁)·장가(張家) 삼교(三橋)라 하였다. 오리당대로(五里塘大路)에 있는 것을 동신교(東新橋)라 하였다. 막가장(莫家場) 앞에 있는 것을 범파교(范婆橋)라 하였는데, 원래는 조그마한 돌다리(石橋)였다. 어행(魚行) 안에 있는 것을 수빙교(水冰橋)라 하였다. 접대사(接待寺) 남쪽에 있는 것을 망불교(望佛橋)라 하였고, 그 다리의 서쪽에 있는 것을 복명교(復明橋)라 하였는데, 예낭중교(倪郎中橋)라고도 하였으며, 그 다리의 동쪽에 있는 것을 뇌도교(雷道橋)라 하였다. 어행(魚行) 안에 있는 것을 흑교(黑橋)라 하였다. 접대사(接待寺) 앞에 있는 것을

향화교(香火橋)라 하였다. 북외주교(北外酒庫) 남쪽 대로에 있는 것을 좌가교(左家橋)라 하였다. 서창(西倉) 남쪽에 있는 것을 보경교(寶慶橋)라 하였는데, 또 총판교(葱版橋)·사사교(蝸螂橋)라고도 하였다. 풍저서창(豐儲西倉) 앞에 있는 것을 서창교(西倉橋)라 하였고, 서창(西倉) 북쪽에 있는 것을 동소도원교(洞霄道院橋)라 하였다. 성북상항(城北廂巷) 입구에 있는 것을 부춘교(富春橋)라 하였는데, 묘가교(茆家橋)라고도 하였다. 서창(西倉) 북쪽에 있는 것을 초방교(醋坊橋)라 하였다. 관계순사(官界巡司) 동쪽에 있는 것을 오가교(吳家橋), 서쪽에 있는 것을 황가교(黃家橋)라 하였다. 강장세무(江漲稅務) 동쪽에 있는 것을 강장교(江漲橋)라 하였는데, 다리의 서남쪽에 있는 것을 귀금교(歸錦橋)라 하였다. 과산경향(瓜山涇巷) 입구에 있는 것을 홍교(洪橋)라 하였고, 과산경향의 동쪽에 있는 것을 사공교(社公橋)라 하였다. 동가항(董家巷) 북쪽에 있는 것을 사자교(獅子橋)·유가교(喻家橋)라 하였는데, 그 다리들 옆에 갈가교(葛家橋)와 여가교(余家橋)가 있었다. 유가교(喻家橋) 서쪽에 엽가교(葉家橋)가 있었고, 북신교(北新橋)의 동쪽에 있는 것을 비가교(費家橋), 북신교의 남쪽에 있는 것을 양봉교(羊棚橋), 그 북쪽에 있는 것을 북신교(北新橋)라 하였는데, 원래 이름을 중흥영안교(中興永安橋)라 하였다. 북신교 모서리 북쪽에 있는 것을 강가교(康家橋)라 하였고, 다리 옆에 있는 것을 풍혜교(豐惠橋)라 하였다. 정등포(正等鋪)에 있는 것을 인묘교(印墓橋)·강가교(康家橋)라 하였다. 북당(北塘) 위에 있는 것을 판교(板橋)라 하였다.

## 7. 倚郭城北橋道<sup>45)</sup>

城北所管地界，自錢塘尉司西水磨頭曰石函橋，又呼西石頭橋。西湖孤山路曰

45) 의곽성북교도(倚郭城北橋道): 성북상(城北廂)은 항주성 밖 북서 지역에서 서쪽 지역 일대를 관할하는데, 그 곳의 치소는 여항문(餘杭門) 밖 강장교(江漲橋)에 있었다.

寶佑橋, 俗呼斷橋<sup>46</sup>). 孤山路中曰涵碧橋. 和靖林處士故居所曰處士橋. 延祥四聖觀西曰西林橋. 蘇堤<sup>47</sup>南來第一橋曰映波, 第二橋曰鎖瀾, 第三橋曰望山, 第四橋曰壓堤, 第五橋曰東浦, 第六橋曰跨虹. 先賢堂前橋曰袁公橋, 蓋府尹袁大資<sup>48</sup>建堂造橋, 以名記之. 麴院新堤路小橋曰小新堤橋. 麴院大路向東曰行春橋. 九里松左軍教場大路西有橋, 亦曰行春橋. 飛行峯<sup>49</sup>路口曰合澗橋. 龍井路口曰歸隱橋, 蓋東坡欲易於過溪, 建此橋也. 麥嶺西太清宮前曰孝義橋. 嶺口寨前曰新河橋. 麥嶺至龍井, 其橋有三, 曰善安·永安·永福橋. 茆家步至丁家山有橋者三, 曰雙井·丁家山·小丁家山橋. 高麗寺<sup>50</sup>側曰惠因橋. 淨慈寺北慶樂園前曰長橋. 錢湖門外沿城海子<sup>51</sup>口隅下曰清化橋. 清波門外, 流福水路橋. 聚景園前曰聚景橋. 顯應觀前曰顯應觀橋. 湧金門外城北水口上曰相國西橋. 九曲小渡曰咸淳新建橋, 曰九曲昭慶橋. 大昭慶寺前曰昭慶廣濟橋, 寺西寨前曰策選寨橋. 昭慶教場西曰教場橋. 教場橋北曰崇福橋. 霍山<sup>52</sup>大路口曰羊坊橋. 霍山行宮巷口曰保安橋. 羊坊巷北曰溜水橋. 精進寺北曰小溜水橋. 溜水橋西北曰沈家場橋, 橋前一帶曰安民橋. 西馬塍<sup>53</sup>觀音

46) 단교(斷橋): 서호의 북동쪽 끝부분에 있는 유명한 다리로, 당(唐) 백居易(白居易)가 항주 자사(杭州刺史)로 있을 때 쌓았다는 백제(白堤) 위에 있다. 서호십경(西湖十景) 중 하나인 단교잔설(斷橋殘雪)로도 유명하다.

47) 소제(蘇堤): 소공제(蘇公堤), 소제(蘇隄)라고도 한다. 북송 원우(元祐) 연간에 소식(蘇軾)이 항주 지사를 하고 있을 때 쌓은 제방. 서호십경 중 하나인 소제춘효(蘇隄春曉)로도 유명하다.

48) 원대 자(袁大資): 원대자는 가정(嘉定) 13년(1220년)과 소경(紹定) 3년(1230년) 임안부의 지사(知事)를 하였던 원소(袁詔)이다.

49) 비행봉(飛行峯): 비래봉(飛來峰)의 오자.

50) 고려사(高麗寺): 고려사는 당 천성(天成) 2년(927년) 오월왕(吳越王) 전류(錢鏐)가 혜인사(慧因寺)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웠다. 고려사가 이름이 난 것은 고려 문종(文宗)의 넷째 아들 우세승통(佑世僧統) 의천(義天)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송 원풍(元豐) 8년(1085년) 의천은 항주 혜인사로 유학을 와서 부정(傅淨)을 스승으로 삼는다. 후에 고려로 귀국한 의천은 《화엄경》 170권과 함께 이를 보존할 장경각(藏經閣)과 보살상을 건조할 재물을 보냈다. 이에 혜인사의 명성이 크게 일어났고, “화엄제일도량(華嚴第一道場)”이란 명예를 얻었으며, 이로 인해 민중에서는 혜인사를 고려사라 불렀다. 2007년 항주시는 <고고려사도(古高麗寺圖)>에 의거해 고려사를 중건하였다.

51) 해자(海子): 호수, 연못의 사투리. 송 심괄(沈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 <잡지(雜志)> 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중산성 북원 안에 또 큰 못이 있었는데 이를 일러 해자라 하였다[中山城北園中亦有大池, 遂謂之海子.]”

52) 관산(霍山): 장진군(張真君) 장발(張渤)을 제사지내는 광혜행궁(廣惠行宮)이 있는 곳으로 매년 2월 8일 대제(大祭)를 지냈다. 권1 <팔일 사산(祠山)의 성탄(聖誕)>조에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庵西曰八字橋. 運司<sup>54)</sup>竹木場前曰馬軍橋. 羊角埂上有橋者四: 曰上泥·下泥·崇鎮·閻家橋. 馬陞烏盆場曰富春橋, 又名烏盆橋. 羊角埂西雙寨門曰策選馬軍橋. 埂西入裏曰神勇步人橋. 本州試院<sup>55)</sup>前曰大通橋·王家橋. 試院東曰道姑橋, 試院西曰清水橋. 石塘東曰西堰橋·古塘橋, 東曰方公橋, 西曰觀音橋. 城西銅錢局前曰古塘橋, 古塘裏西曰惠安橋. 北郭稅務前曰餘杭橋. 天宗水門外曰上堰橋. 餘杭橋側曰下堰橋. 北郭稅務北曰糖餅橋. 神勇鋪曰過軍橋, 上閘南曰上斗門橋, 下斗門西曰永興橋, 上閘南曰中斗門橋, 上閘東陸家場前曰天宗棧庫橋. 餘杭門外上閘頭曰上閘橋, 上閘北中閘頭曰中閘橋, 中閘西曰唐家橋, 又名鎮安橋. 中閘北下閘頭曰下閘橋·米市橋, 南曰浴室橋. 下閘西北曰米市橋, 米市裏曰黑橋. 麻線巷曰採蓮橋. 夾城巷口曰袁家橋·德勝橋, 北曰下斗門橋. 舊瓦子後曰鄧家橋, 又名廣利橋. 石碑頭巷內曰袁公橋. 糴場<sup>56)</sup>後德勝橋舊名堰橋, 因韓太尉<sup>57)</sup>掩擊<sup>58)</sup>苗傅, 故杭人稱之. 曰長板橋, 曰楊漣橋. 下界倉後曰高家·梁漣·張家三橋. 五里塘大路曰東新橋. 莫家場前曰范婆橋, 元係小石橋. 魚行裏曰水冰橋. 接待寺南曰望佛橋, 橋西曰復明橋, 一名倪郎中橋, 橋東曰雷道橋. 魚行裏曰黑橋. 接待寺前曰香火橋. 北外酒庫南大路曰左家橋. 西倉南曰寶慶橋, 又名葱版蠅橋<sup>59)</sup>. 豐儲西倉前曰西倉橋, 倉北曰洞霄道院橋. 城北廂巷口曰富春橋, 一名茆家橋. 西倉北醋坊橋. 官界巡司東曰吳家橋, 司西曰黃家橋. 江漲稅務東曰江漲橋, 橋西南曰歸錦橋. 瓜山涇巷口曰洪橋, 巷東曰社公橋. 董家巷北曰獅子橋·喩家橋, 橋側葛家·余家二橋. 喩家橋西葉家橋, 北新東曰費家橋, 北新南曰羊棚橋, 橋北曰北新橋, 元名中興永安橋. 北新隅北曰康家

53) 마승(馬陞): 절강성(浙江省) 여항현(餘杭縣)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송대에는 꽃의 생산으로 유명하였다.

54) 운사(運司): 고대 관명(官名)인 전운사사전운사(轉運使司轉運使)와 염운사사염운사(鹽運使司鹽運使)의 약칭.

55) 시원(試院): 향주의 시원에서는 과거의 1차 시험인 향시(鄉試)를 보았다.

56) 적장(糴場): 미곡(米穀)을 사들이던 곳.

57) 한태위(韓太尉): 한세충(韓世忠). 남송 고종(高宗) 초 건염(建炎) 3년(1129년) 묘부(苗傅), 유정언(劉正彦)이 고종 주변의 인물과 환관에게 불만을 품고 고종의 퇴위와 황태자 조보(趙卣+方)의 옹립을 주장하며 군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반란을 한세충이 진압했다.

58) 엄격(掩擊): 습격(襲擊), 기습 공격.

59)葱판사교(葱版蠅橋): 《합순임안지(咸淳臨安志)》에 “우명총판교(又名葱版橋), 우명사사교(又名蠅橋)”로 되어 있어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橋, 橋側曰豐惠橋. 正等鋪曰印墓橋·康家橋. 北塘上曰板橋.

## 8. 아홉 지역의 상(廂)으로 구획 된 항주성의 구역들(坊巷)

항주성은 아홉 지역의 상(廂)으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각 상마다 하위직 무관(武官) 한 사람씩을 임명하여 소방과 도적 잡는 일을 맡게 하였고, 소속된 곳으로 유치(留置) 또는 호송(護送)하게 하였다. 그 직위는 아주 낮았는데, 일을 맡고 있는 자들은 군순포의 병졸, 화하(火下), 지분(地分) 같은 이들이었고, 밤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궁성상무(宮城廂廡) 구역(坊巷)으로 말하자면, 동쪽으로는 가회문(嘉會門)과 금성(禁城)의 모서리까지, 서쪽으로는 중군(中軍)의 담벽에 있는 소채문(小寨門)까지, 남쪽으로는 팔반령(八盤嶺)에까지, 북쪽으로는 편문(便門)의 군순포(軍巡鋪)가 있는 성 모서리까지였다.

좌일남상(左一南廂)이 관할하는 구역은 대은(大隱)·안영(安榮)·회경(懷慶)·화풍(和豐)으로 청화방(淸和坊) 안으로 들어와 남쪽 일대에 있었다.

좌일북상(左一北廂)이 관할하는 구역으로는 오산정항(吳山井巷)이라고도 하는 오산방(吳山坊), 남와자(南瓦子)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청화방, 관폐영항(灌肺嶺巷)이라고도 하는 융화방(融和坊), 통화방(通和坊)과 마주보고 있으며 신가(新街) 융화방의 북쪽에 있는 태평방(太平坊), 건자항(巾子巷)인 시남방(市南坊), 민간에서 패두(壩頭) 또는 삼교가(三橋街)라 불렀던 시서방(市西坊) 및 어가(御街) 서쪽 일대였다. 남신가(南新街)는 어사대(御史臺)와 마주보고 있었다. 강유방(康裕坊)은 민간에서는 팔작사항(八作司巷)이라 불렀다. 후시가(後市街)는 오산북방(吳山北坊) 서쪽과 마주하고 있었다. 태화방(泰和坊)은 민간에서는 나미창항(糯米倉巷)이라 불렀다. 천정방(天井坊)은 바로 천정항(天井巷)으로 예전에는 통제방(通湖坊)이라 불렀는데, 약간 서쪽에 용설두로

(龍舌頭路)가 있었다. 중화방(中和坊)은 원래 누점무항(樓店務巷)이라 불렀는데, 예전 이름은 정인방(淨因坊)이었다. 인미방(仁美坊)은 민간에서는 석판항(石坂巷)으로 불렀는데, 통판북청(通判北廳)의 동쪽에 있었다. 근민방(近民坊)은 항주부치(杭州府治)의 동쪽에 있었다. 유복방(流福坊)은 항주부치 앞 서쪽에 있었다. 풍유방(豐裕坊)은 능가교(凌家橋) 서쪽에 있었다. 미화방(美化坊)은 항주부학(府學)의 서쪽에 있었다. 위의 여덟 항[八巷]은 청하방 북쪽 일대에 있었는데, 항주부치에까지 이르렀고, 소서하(小西河)를 따라 항주부학 앞 능가교(陵家橋) 서쪽에까지 이르렀다.

좌이상(左二廂)이 관할하는 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수의방(修義坊)은 민간에서 능초항(菱椒巷)이라 불렀는데, 바로 육시(肉市), 즉 “고기 시장”이었다. 부락방(富樂坊)은 민간에서는 매마항(賣馬巷), 즉 ‘말 파는 거리’라고 불렀다. 중락방(衆樂坊)은 민간에서는 호포천항(虎跑泉巷), 즉 ‘호랑이가 밧로 판 샘 거리’라 불렀다. 교목방(教睦坊)은 민간에서는 구아산항(狗兒山巷)이라 불렀다. 적선방(積善坊)은 바로 상백희항(上百戲巷)이다. 수의방(秀義坊)은 바로 하백희항(下百戲巷)이다. 진안방(鎮安坊)의 속명(俗名)은 관항(官巷)이다. 수문방(修文坊)은 바로 예전의 장작감항(將作監巷)이다. 이인방(里仁坊)의 원래 이름은 도가항(陶家巷)이다. 보신방(保信坊)은 민간에서는 전도고항(剪刀股巷)이라 불렀다. 정민방(定民坊)은 바로 중봉항(中棚巷)이다. 목친방(睦親坊)은 민간에서는 종학방(宗學巷)이라 불렀다. 순례방(純禮坊)의 원래 이름은 후양가항(後洋街巷)이다. 보화방(保和坊)은 예전에는 전가항(磚街巷)이라 칭했다. 보은방(報恩坊)의 속명은 관항(觀巷)이다. 위의 거리들은 어가 서쪽 일대에 있었다. 복덕방(福德坊)은 보화방항(保和坊巷) 안에 있었다. 초현방(招賢坊)은 인화현청(仁和縣廳) 앞 거리와 마주보고 있었다. 등성방(登省坊)은 현청(縣廳)과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 곳은 곽지사(郭知事)가 일반 백성의 땅을 사서 개발한 구역이다.

좌삼상(左三廂)이 관할하는 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흠선방(欽善坊)은 정정교(井亭橋) 남쪽에 있는 문선자항(聞扇子巷)이다. 감천방(甘

泉坊)은 상국정항(相國井巷) 입구에 있었는데, 정정교(井亭橋)와 마주보고 있었다. 청풍방(淸風坊)은 장문부(莊文府)의 남쪽에 있는 활수항(活水巷)이다. 청하방(淸河坊)은 홍복교(洪福橋) 서쪽, 양화왕부(楊和王府) 앞에 있었다. 흥경방(興慶坊)은 결박교(結縛橋)와 마주하고 있는 전양가(前洋街)이다. 덕화방(德化坊)은 옛 목자항(木子巷)으로 반낭항(潘閩巷) 입구에 있었다. 자민방(字民坊)과 평이방(平易坊)은 모두 전당현청(錢塘縣廳) 앞에 있었다.

우일상(右一廂)이 관할하는 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효인방(孝仁坊)·등평방(登平坊) 두 구역은 각각 화녕문(和寧門) 밖 서쪽과 동쪽에 있었다. 수역방(壽域坊)은 태묘(太廟) 남쪽에 있는 양료원항(糧料院巷)이다. 천경방(天慶坊)은 바로 천경관항(天慶觀巷)이다. 보안방(保安坊)은 원래 묘항(廟巷)이라 불렀다. 회신방(懷信坊)은 민간에서는 자단항(糴糶巷)이라 불렀다. 장경방(長慶坊)은 충정묘로(忠淸廟路)에 들어서면 있었다. 이상의 구역들은 대가(大街)의 동쪽과 서쪽에 있었다. 신개방(新開坊)은 청평항(淸平巷)을 동쪽으로 돌아 상포검영로(上抱劍營路)에 있었다. 상경방(常慶坊)은 도세무(都稅務) 남쪽 시타교항(柴樑橋巷)이다. 부락방(富樂坊)은 천교(薦橋) 서쪽에 있었다.

우이상(右二廂)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청평방(淸平坊)은 바로 예전의 사피항(沙皮巷)이다. 통화방(通和坊)은 금파교로(金波橋路)이다. 보우방(寶佑坊)은 바로 복왕부(福王府)의 관람석(看位)에 쪽 뻗은 길에 있었다. 현복방(賢福坊)은 바로 제방 동쪽에 있는 묘아교항(猫兒橋巷)이다. 난릉방(蘭陵坊)은 수항교항(水巷橋巷)이다. 회화방(義和坊)은 민간에서는 탄교항(炭橋巷)이라 불렀다. 무지방(武志坊)의 원래 이름은 이박사교항(李博士橋巷)이다. 계민방(戒民坊)은 민간에서는 붕교항(棚橋巷)이라 불렀는데, 항주성의 처형장이었다. 신안방(新安坊)은 신교루항(新橋樓巷)이란 이름이 있었다. 연정방(延定坊)은 아압교항(鴛鴨橋巷)이다. 안국방(安國坊)은 바로 북교항(北橋巷)이다. 회원방(懷遠坊)은 예전에는 군두사영항(軍頭司營巷)이라 불렀다. 보녕방(普寧坊)은 관교(觀橋)의 북쪽에 있었는데, 바로 청원교항(淸

遠橋巷)이다. 모두 어가의 동쪽 일대에 있었다. 동덕방(同德坊)은 예전에는 등심향(燈心巷)이라 불렀는데, 대가(大街)의 북쪽에 있었다. 가신방(嘉新坊)은 북주고(北酒庫)의 동쪽에 있었는데, 북쪽을 향한 것을 일러 칠랑당향(七郎堂巷)이라 하였다. 교흠방(教欽坊)은 민간에서는 죽간향(竹竿巷)이라 불렀는데, 북주고 동쪽에 있으면서 남쪽을 향하였다. 신개남향(新開南巷)은 천교(薦橋) 부락방(富樂坊)이고, 신개북향(新開北巷)을 마주하고 있으며, 일신교(日新橋) 동쪽에 있다.

우삼상(右三廂)이 관할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동향방(東巷坊)은 바로 상중사향(上中沙巷)이다. 서향방(西巷坊)의 이름은 하중사향(下中沙巷)이라 한다. 풍화방(豐禾坊)은 전황후부(全皇后府) 동쪽에 있다. 선이방(善履坊)은 바로 방윤교(芳潤橋) 동쪽에 있다. 흥례방(興禮坊)은 염교(鹽橋) 아래 서북쪽에 있다. 창락방(昌樂坊)은 포교(蒲橋) 동쪽에 있다.

우사상(右四廂)이 관할하는 구역의 이름은 흥례방(興禮坊)으로 종양궁(宗陽宮)의 담장 동쪽으로부터 전법사(傳法寺)·우성관(佑聖觀)·곽태후택(郭太后宅)·사태후택(謝太后宅)·복전궁(福田宮)에 이르기까지로, 거리를 나와 쪽가면 영해방(寧海坊)이 나왔는데 이 지역 모두가 관할 지역이었다.

대저 항주성에는 예전에 있던 구역들 중 폐지된 것이 일곱 개로 나한동(羅漢洞)에는 예전에 미속(美俗)이란 이름의 방(坊)이 있었고, 삼교(三橋) 용금로(湧金路)에는 회창방(會昌坊)이 있었으며, 홍교(洪橋) 양부향(揚府巷)은 원래 자운방(紫雲坊)이라 하였다. 계신가향(癸辛街巷)이 종훈방(從訓坊)이 되고, 마가교(馬家橋) 서쪽에는 일찍이 효자방(孝慈坊)이 있었다. 세부교(洗麩橋) 남쪽과 북쪽 기슭에 있는 것을 통보방(通寶坊)과 풍재방(豐財坊)이라 하였다. 모두 후세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적어 놓는다.

8. 禁城九廂坊巷<sup>60)</sup>

在城九廂界, 各廂一員小使臣注授, 任其煙火盜賊, 收解所屬. 其職至微, 所統者軍巡<sup>61)</sup>火下地分<sup>62)</sup>, 以警其夜分不測耳. 曰宮城廂, 廂·坊·巷, 東至嘉會門禁城角, 西至中軍壁小寨門, 南至八盤嶺, 北至便門巡鋪城角矣. 左一南廂所管坊巷: 曰大隱·安榮·懷慶·和豐, 並在清和坊內南首一帶. 左一北廂所管坊巷: 曰吳山坊, 即吳山井巷. 清和坊, 與南瓦子相對. 融和坊, 即灌肺嶺巷. 新街·融和之北太平坊, 通和相對. 市南坊, 即巾子巷. 市西坊, 俗呼壩頭, 又名三橋街, 並在御街西首一帶. 南新街, 御史臺相對. 康裕坊, 俗呼八作司巷<sup>63)</sup>. 後市街·吳山北坊西相對. 泰和坊, 俗呼糯米倉巷. 天井坊, 即天井巷, 舊名通湖坊, 稍西龍舌頭路. 中和坊, 元呼樓店務巷, 舊名淨因坊. 仁美坊俗呼石坂巷, 在通判北廳之東. 近民坊, 府

60) 금성구상방항(禁城九廂坊巷): 이 조에서는 남송 항주성 안의 주요한 서민 거주지 및 상점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송대의 대도시는 상(廂)이라는 이름을 갖는 치안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이 명칭은 당말오대(唐末五代) 시기 군대 주둔지의 구획과 관련이 있는데, 송대에 광범위하게 있었던 노역(勞役)부대인 상군(廂軍)이란 명칭도 이와 연관이 있다. 12세기 남송 항주성은 일곱 개의 상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이보다 백 년 가까이 뒤에 쓰인 《몽량록》 시기에는 아홉 개의 상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 아홉 개 상의 위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항주성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어가(御街)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 서쪽 지역의 좌상(左廂)은 남쪽으로부터 일, 이, 삼상으로, 동쪽 지역의 우상(右廂)은 일, 이, 삼, 사상으로 구획된 것이 상의 기본 배치이다. 여기에 최남단에 있는 궁상(宮廂)을 덧붙이고, 좌일상(左一廂)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아홉 개의 상을 만든 것이다. 이 아홉 개의 상에 방(坊)과 항(巷)이 속해 있었는데, 이 조에서는 80여개의 방과 이와 비슷한 숫자의 가(街)와 항이 나온다. 남송 항주의 경우 원래 대가(大街)와 맞닿아 있는 1m에서 3m 너비의 조그만 도로를 항 또는 로(路)라 하였는데, 때로는 방명(坊名)을 여기에 덧붙여 무슨무슨 방항(坊巷)이라고도 불렀다.(우메하라 카오루(梅原都)의 《몽량록》 1 346쪽 주1)을 참고해 정리함.)

61) 군순(軍巡): 군순포(軍巡鋪), 즉 지금의 파출소의 병졸.

62) 화하(火下)·지분(地分): 하급직 병졸, 관리 등을 의미.

63) 팔작사항(八作司巷): 팔작(八作)이란 이작(泥作)·적백작(赤白作)·동유작(桐油作)·석작(石作)·와작(瓦作)·죽작(竹作)·전작(塼作)·정작(井作)을 말하는데, 동서 이국(二局)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여러 종류의 건설 기계를 제작하고, 명령을 받아 경사 안팎의 궁원(宮院), 사관(寺觀) 등의 건조(建造)와 수축(修築)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공장(工匠)을 광비병사(廣備兵士)라고 하였다.

治東. 流福坊, 府治前西. 豐裕坊, 凌家橋西. 美化坊, 府學西. 八巷並在清和坊北首一帶, 直至州府沿河至府學前凌家橋西. 左二廂所管坊巷: 曰修義坊, 俗呼菱椒巷, 卽肉市. 富樂坊, 俗呼賣馬巷. 衆樂坊, 俗呼虎跑泉巷. 教睦坊, 俗呼狗兒山巷. 積善坊, 卽上百戲巷. 秀義坊, 卽下百戲巷.<sup>64)</sup> 鎮安坊, 俗名官巷<sup>65)</sup>. 修文坊, 卽舊將作監巷<sup>66)</sup>. 里仁坊, 元名陶家巷. 保信坊, 俗呼剪刀股巷. 定民坊, 卽中棚巷. 睦親坊, 俗呼宗學巷. 純禮坊, 元名後洋街巷. 保和坊, 舊稱磚街巷. 報恩坊, 俗名觀巷. 以上在御街西首一帶. 福德坊, 在保和坊巷內. 招賢坊, 仁和縣前對巷. 登省坊, 縣衙相對, 係郭宰<sup>67)</sup>買民地闢開此坊耳. 左三廂所管坊巷: 欽善坊, 井亭橋南, 聞扇子巷. 甘泉坊, 相國井巷口, 與井亭橋對. 清風坊, 莊文府<sup>68)</sup>南, 活水巷. 清河坊, 洪福橋西, 楊和王府前. 興慶坊, 結縛橋對, 前洋街. 德化坊, 舊木子巷, 在潘閣巷口. 字民·平易, 俱在錢塘縣前. 右一廂所管坊巷: 孝仁·登平二坊, 和寧門外西東. 壽域坊, 太廟南, 糧料院巷. 天慶坊, 卽天慶觀巷. 保安坊, 元呼廟巷. 懷信坊, 俗呼 $\square$ 纏巷. 長慶坊, 入忠清廟路. 以上並在大街東西. 新開坊, 清平巷轉東上抱劍營路. 常慶坊, 都稅務南柴垛橋巷. 富樂坊, 薦橋西. 右二廂所管坊巷: 清平坊, 卽舊沙皮巷. 通和坊, 金波橋路. 寶佑坊, 卽福王府看位一直路. 賢福坊, 卽壩東猫兒橋巷. 蘭陵坊, 水巷橋巷. 義和坊, 俗呼炭橋巷. 武志坊, 元名李博士橋巷. 戒民坊, 俗呼棚橋巷, 爲市曹<sup>69)</sup>行刑之地. 新安坊, 名爲新橋樓巷. 延定坊, 鶯鴨橋巷. 安國坊, 卽北橋巷. 懷遠坊, 舊呼軍頭司營巷. 普寧坊, 在觀橋之北, 卽清遠橋巷. 皆在御街東首一帶. 同德坊, 舊呼燈心巷, 在大街北. 嘉新坊, 北庫<sup>70)</sup>東西北, 呼七郎堂

64) 상백희항-하백희항(上百戲巷-下百戲巷): 상하백희항은 대와자(大瓦子)라고도 불린 항주 최대의 유흥가였다.

65) 관항(官巷): 관항은 항주의 상업 중심지구로 남송 시대에는 수많은 금융업자들이 그곳에서 영업을 하였다.

66) 장작감(將作監): 궁궐의 건축, 금·옥·진주·비취·무소불·상아·보물 등을 재료로 한 그릇 제조, 비단 등에 놓은 자수를 비롯해 다양한 용기를 만들었던 관서인 동시에 그 관직의 이름이기도 하다.

67) 광재(郭宰): 당시 항주부 지사였던 광응유(郭應酉)란 인물로 《함순임안지(咸淳臨安志)》에도 함순 5년 지사가 일반 백성의 땅을 사서 방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68) 장문부(莊文府): 장문태자부(莊文太子府)를 가리킨다. 장문태자 조기(趙愔)는 남송 2대 황제 효종(孝宗)의 적장자로 건도(乾道) 원년(1165년) 황태자가 되었으나, 3년 가을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문부에는 그의 후예들이 거주하였다.(<송사> 권246)

69) 시조(市曹): 처형장. 북송 개봉에서도 시조는 처형장을 의미했다.

巷. 教欽坊, 俗呼竹竿巷, 北酒庫東, 面南. 新開南巷, 薦橋, 富樂坊, 日新橋東. 右三廂所管坊巷: 東巷坊, 卽上中沙巷. 西巷坊, 名下中沙巷. 豐禾坊, 全皇后府<sup>71)</sup>東. 善履坊, 卽芳潤橋東. 興禮坊, 鹽橋下西北. 昌樂坊, 蒲橋東. 右四廂所管坊巷名曰興禮, 自宗陽宮牆之東, 至傳法寺·佑聖觀·郭·謝太后<sup>72)</sup>宅·福田宮, 出街直到寧海坊, 俱屬所統也. 蓋杭舊有坊巷, 廢之者七, 如羅漢洞舊有坊名美俗, 三橋湧金路舊名會昌坊, 洪橋揚府巷元作紫雲坊, 癸辛街巷爲從訓坊, 馬家橋西曾立孝慈坊, 洗麩橋南北二岸謂之通寶·豐財二坊, 皆後人不可不知, 姑並述之.

### < 參考文獻 >

- 孟元老(1956), 《東京夢華錄外四種》, 上海: 上海古典文學出版社.
- 吳自牧 著·梅原郁 譯註(2000), 《夢梁錄 - 南宋臨安繁昌記》1-3, 東京: 平凡社.
- 南宋 吳自牧·周密 撰·傅林祥 注(2001), 《夢梁錄·武林舊事》, 濟南: 山東友誼出版社.
- 宋 吳自牧 著·符均·張社國 校註(2004), 《夢梁錄》, 西安: 三秦出版社.
- 劉坤 等 主編(2003), 《夢梁錄外四種》,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鄧之誠 注(1982), 《東京夢華錄注》, 北京: 中華書局.
- 入矢義高·梅原郁 譯註(1996), 《東京夢華錄 - 宋代の都市と生活》, 東京: 平凡社.
- 伊永文 箋注(2006), 《東京夢華錄箋注》, 北京: 中華書局.
- 姜漢椿 譯注(1998), 《東京夢華錄全譯》,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 王明蓀 編撰(1983), 《東京夢華錄》, 台北: 時報出版公司.
- 黃驗 注(2004), 《圖解東京夢華錄》, 台北: 實學社.
- 孟元老 著, 김민호 譯(2010), 《東京夢華錄》, 서울: 소명출판.
- 徐兢 著, 조동원 等譯(2005), 《고려도경》, 서울: 황소자리.
- 沈括 지음, 최병규 譯(2002), 《몽계필담》, 서울: 범우사.
- John W. Chaffee 지음, 양종국 옮김(2001), 《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 서울: 신서

70) 북고(北庫): 북주고(北酒庫). 북주고는 자계(煮界)와 청계(淸界)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아압교(鵞鴨橋)의 동쪽에 있는 청계고(淸界庫)로 보인다.

71) 전황후부(全皇后府): 전황후는 도종(度宗)의 황후이다.

72) 곽·사태후(郭·謝太后): 곽태후는 효종(孝宗)의 황후이고, 사태후는 이종(理宗)의 황후이다.

원.

자크 제르네, 김영제 옮김(2003), 《전통 중국인의 일상생활》, 서울: 신서원.

< 中文提要 >

《夢梁錄》二十卷，宋吳自牧撰。自牧錢塘人，是書全用《東京夢華錄》之體，以紀南宋郊廟宮殿，下至百工雜戲之事。周密《武林舊事》序云：“欲如孟元老夢華而近雅，固謂夢華錄，不足於雅馴矣。而自牧是書之俚俗，殆有甚於夢華錄者。然其言得自見聞，頗為質實，典章文物於是可徵與武林舊事詳略，互見實可資，以稽考故事。”首有自序云：“緬懷往事，殆猶夢也。故名夢梁錄。”未署甲戌歲中秋日書。考甲戌為宋度宗咸淳十年，其時宋未亡也。意甲戌字傳寫舛訛歟。卷七裏收錄 <杭州>，<大河橋道>，<小河橋道>，<西河橋道>，<小西河橋道>，<倚郭城南橋道>，<倚郭城北橋道>，<禁城九廂坊巷>等內容。

關鍵詞: 夢梁錄, 吳自牧, 臨安, 杭州, 南宋.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31.	2015. 7. 14.	2015. 7. 23.	2015. 8. 5.	2015. 8. 31.